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吳 允 禎

2005年 12月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指導教授 南 辰 烈

吳 允 禎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吳允禎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A Study on revitalization plans for lifelong education in case of jeju region

Yun-Jung Oh

(Supervised by professor Chin-Yoel Na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December, 2005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인재양성이 매우 시급하다. 현대사회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세계적 경향이 평생교육이고,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을 모색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서술하였고,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각 국의 평생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설문문을 통해 제주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분석을 하였고, 4장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을 모색하였으며, 5장에서는 분석요약 및 이에 따른 정책제언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개인적 특성, 평생교육 인지도여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과 F검정한 결과, 가설 1 제주도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체 기각되었고, 가설 2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직업을 제외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부분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3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인지도여부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4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개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평생교육 만족도와 평생교육욕구간의 상관관계검정에서는 전체적으로 Pearson 계수값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첫째, 재정지원이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22조 307억원 대비 99억원으로 0.04%('04년 일반회계 기준)에 지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바야흐로 전세계적으로 평생교육사

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 예산을 점차 늘려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평생교육대상자에게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제도적 개선이다. 영국 등 평생교육 선진도시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평생교육의 대상을 성인의 학교후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연령대로 확대하여 연령별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평생교육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나아가 지역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광고 및 홍보이다.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다른 지역의 실태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책자 발간,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 공모 등 대상에 따른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역할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무료강좌를 증설하여 비용의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취업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사회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제주의 평생교육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연수, 워크숍 등이 자주 행해져야 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연계연수를 실시하여 다른 지역들과 평생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학습목적에 맞는 학습경로를 찾아주는 평생학습 전문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역할은 첫째,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속에 학습동아리를 만들거나 창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학습자로서 지역사회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이 자신만을 위한 지식의 함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등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주민(피교육자)이 주체가 되는 적극성이 강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건의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가설검정에서 살펴봤듯이 도민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법, 교육장소 등의 차별화를 통해서 제주도의 평생교육은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주민이 주체별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제주도의 평생교육은 현재 기반조성 상태에서 활성화시점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평생교육 추진현황	6
제1절 이론적 의의 및 특성	6
1. 평생교육의 의의	6
2. 평생교육의 특성	11
제2절 각 국의 평생교육 추진현황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1
제 3 장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분석	26
제1절 조사설계	26
1. 연구의 모형	26
2.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27
3. 가설의 설정	30
4. 연구방법	31

제2절 조사결과 및 가설의 검정	34
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34
2. 조사분석의 내용	36
3. 가설의 검정	84
제 4 장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8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8
제2절 교육기관의 역할	89
제3절 지역주민의 역할	90
제 5 장 결론	92
제1절 요약 및 제언	9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95
참고문헌	97
부록 - 설문지	100
ABSTRACT	109



< 표 차 례 >

<표2-1> 평생교육의 개념구조	9
<표2-2>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이	14
<표2-3>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선정현황	15
<표2-4> 도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	16
<표2-5> 연도별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 운영 주민자치센터 수	16
<표3-1-1> 변수와 변수의 구성	30
<표3-1-2> 설문지 구성내용 및 변수	32
<표3-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33
<표3-1-4> 미참여자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33
<표3-2-1>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	34
<표3-2-2>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	35
<표3-3-1> 평생교육 인지도	36
<표3-3-2> 평생교육 최초 인지경로	38
<표3-3-3> 평생교육기관 인지정도	40
<표3-4-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실태	42
<표3-4-2> 이용년수	44
<표3-4-3> 참여기관	46
<표3-4-4> 참여과정(다중응답)	48
<표3-4-5> 참여시간	49
<표3-4-6> 만족도 분석(도움정도)	50
<표3-4-7> 참여기관에 따른 만족도	52
<표3-4-8> 교육목적 만족도	55
<표3-4-9> 교수방법 만족도	55
<표3-4-10> 교수자질 만족도	56
<표3-4-11> 교육시간 만족도	58
<표3-4-12> 시설설비 만족도	59

<표3-4-13> 교육비용 만족도	60
<표3-4-14> 교통편의 만족도	61
<표3-4-15> 교육효과 만족도	63
<표3-4-16> 사회적 인정 및 활용도 만족도	64
<표3-4-17>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자에 관한 실태	65
<표3-4-18> 참여하지 못한 이유	67
<표3-5-1> 평생교육 필요욕구	69
<표3-5-2> 참여희망과정 실태	70
<표3-5-3> 참여하고 싶은 장소	72
<표3-5-4> 개발해야 할 과정	74
<표3-5-5> 희망하는 교육방법	75
<표3-5-6>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욕구 실태	77
<표3-6> 평생학습만족도와 욕구의 상관관계	78
<표3-7-1> 평생교육시설 확보방안	80
<표3-7-2> 평생학습사회 조성의 장애요소 실태	81
<표3-7-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의 역할(중복체크) ..	82
<표3-7-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중복체크) ..	83
<표3-8-1> 독립변수별 평생교육 욕구검정	85
<표3-8-2> 가설의 검정	87

< 그림 차례 >

<그림 1> 연구의 과정	5
<그림 2> 연구의 모형	2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 지방화 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과 같은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맞이하여 교육체제도 학교교육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전개하는 지역사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학습을 위한 공동의 장(場)으로서 학습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위한 노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평생교육 사업은 모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¹⁾

최근 우리나라도 정책의 방향이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양성이다. 인재가 있을 때 지역혁신도 국가의 발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재를 키우는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학벌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아직까지 정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에 밀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는 학교교육에 밀려 예산도, 조직도 너무나 미약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더 이상 ‘사람’을 키우기 위한 일은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이다.²⁾

평생교육은 실제적으로 문화 예술과정 위주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취미교양을 위한 여가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폄하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소수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잘못 이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평생교육이 탄생한 본래적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평생교육은 개인의 학습결과가 모여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즉,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전개하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국가 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이 전개되

1) 양은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2003. 8

2) 2005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2005. 6

고 있으나 아직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제주도는 수도권과 떨어져있어, 정보의 획득이나 정보공유 측면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아직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시가 2002년, 서귀포시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제주시, 서귀포시의 평생학습센터 관련 조례제정,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제주시민 평생학습욕구조사, 서귀포시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조사,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의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주시, 서귀포시의 추진상태인 것일 뿐, 군지역은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주체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가 하나의 단일광역체제로 가는 혁신안이 선택된 현 시점에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역별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활성화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교육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교육적 욕구를 알아야 그것을 교육적 목표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의 인지도, 실태 및 만족도,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될 때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가의 평생학습 추진과정 및 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 및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지역단위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

본,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도의 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평생교육의 개념 정립 및 시대적 필요성 및 선행연구 검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개념 정립,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평생교육의 내용을 정의와 분류체제에 따라 교육대상별, 교육기관별, 교육프로그램별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평생교육체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검토하여 평생교육 실태 및 만족도,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제시경향을 살펴보았다.

다.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 파악

제주도민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지도, 평생교육기관이용 실태 및 만족도, 욕구조사를 통하여 일반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라.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제시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과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역할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① 지역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의 특성 및 내용 등에 관련한 연구·발표 보고서, 학술지 논문, 세미나자료, 인터넷자료, 학위논문 및 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고, ②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추진배경 및 사업성과와 함께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가들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정, 정부-교육기관-시민 간의 파트너십 체제, 평생학습 마을 또는 도시만들기 동향 및 네트워크 체제 등의 사례를 탐색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③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증조사 연구방법은 3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전개 과정은 <그림 1>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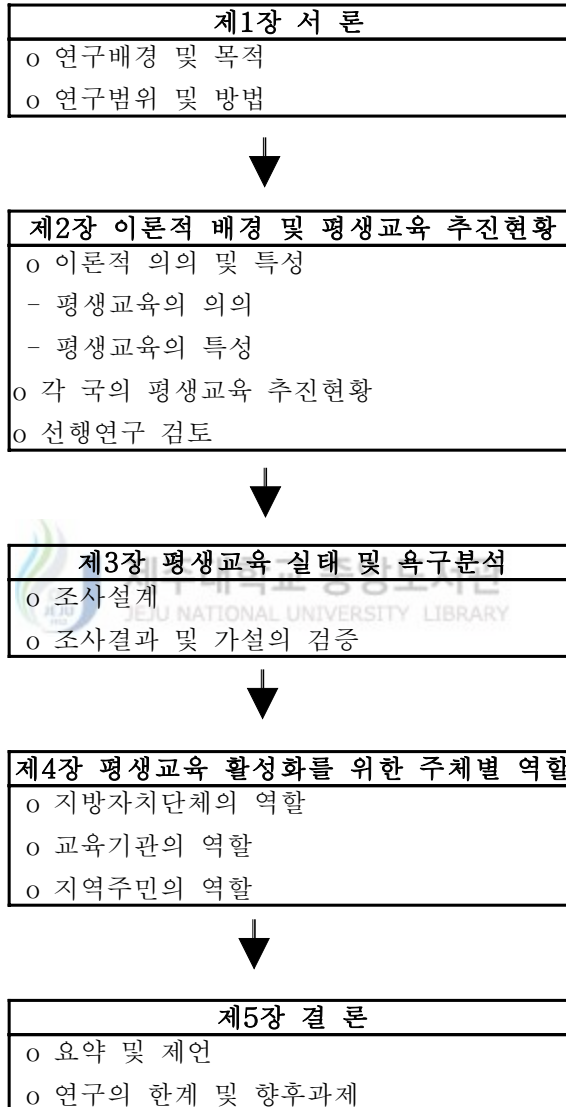
2장 이론적 배경 및 평생교육추진현황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평생교육의 개념정립 및 시대적요구와 필요성, 평생교육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존 평생교육 관련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평생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제주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주민의 주체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요약 및 제언,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과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평생교육 추진현황

제1절 이론적 의의 및 특성

1. 평생교육의 의의

평생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생활에 적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던 관계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그때그때의 주변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교육이란 이름으로 적용되어 왔고,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성격을 가진다. 자아실현과 사회적 적응을 강조하던 인문 교양 중심의 평생교육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 교육과 평생고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공급자중심의 ‘평생교육’ 개념이 교육의 수요자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점차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UNESCO, OECD,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의 시대적 욕구, 평생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평생교육의 개념

1) UNESCO의 평생교육 개념

평생교육을 처음으로 주창했던 Lengrand(1970)는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이라고 하였다. Lengrand(1970: 25-37)는 평생교육 등장의 동인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구조적이고 과정적인 변모와 그에 따른 정신문화의 변모 및 양자간의 지체 현상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혼란에서 유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대내·외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교육은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경험의 결과로서 자아실현을 증대시키는 발달 과정이라고 보았고 Lengrand는 교육은 삶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한 과업이며, 이에 따라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평생을 통해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Lengrand의 정의와 개념적 특성은 Dave에 의하여 한층 더 명료하게 정립되었다.

Dave(1976: 34)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과 집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다. 여기

3)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DB구축방안 연구, 2003.12

에서 평생교육은 생의 각 단계와 영역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을 포함하는 종합적, 통합적 이념이다.” 이 정의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주로 교육의 부문 및 영역간의 통합성과 계속성, 전체성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성은 대부분 Dave가 초창기에 정리한 범주를 따르고 있다.

또한 UNESCO의 평생교육은 Faure(1972)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을 알고, 자신이 되게 하고, 완전한 인간, 균형 있는 인간이 되는 자아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존재를 위한 학습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UNESCO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그 외의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총체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OECD의 평생교육 개념

OECD는 1973년에 현실적 전략인 「순환교육: 평생학습 전략」을 내놓았다. World Bank와 함께 세계경제 체제를 지식기반경제 체제로 재편하고 있는 OECD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의 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초기 OECD의 평생교육은 순환교육으로 생애에 걸쳐 교육과 일의 주기를 재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의 일회성 학교교육 체제가 지니는 비효율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시기를 평생에 걸쳐 순환적으로 재분배하여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순환교육의 주된 목적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적 재적응과 생산성 제고이며, 교육 방식은 학교교육이 주가 되고 학교교육과 직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교육형태를 취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OECD는 지속적 국가발전은 평생학습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순환교육으로부터 만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1996년 교육부 장관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안건으로 평생학습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1997년 노동부 장관회의에서는 젊은이와 성인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평생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1998년 사회부 장관회의에서는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교육, 직장, 취미 등의 활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략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개념을 확장하였다(이희수, 2002).

이와 같이 OECD는 평생학습을 생애에 걸쳐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비형식 학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 성인을 위한 순환교육을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확대시켰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평생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능력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 제2의 출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은 교육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상하여 준다는 제2의 교육이나 성인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할 능력과 학습하려는 동기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McKenzie and Wurzburg, 1998).

OECD에서는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생애적 학습과 형식적 학습, 비형식적 학습, 무형식적 학습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 국내에서의 평생교육 개념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개념적 정의로는, UNESCO 한국위원회, 황종건, 김종서 등의 개념정의와 평생교육법상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1973년 8월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평생교육’ 개념과 원리가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UNESCO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같이 개편 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급속히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자기갱신과 사회적 적응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학교화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새로운 교육적 노력을 지칭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UNESCO한국위원회, 1976) 그리고 1999년 8월에 평생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실질적 학습사회 구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은 교육 그 자체와 동의어적 개념으로 어떤 실천적 영역을 갖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묶는 이념의 성격을 갖는다.

황종건(1992)은 “평생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교육 통합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평생을 통한 교육 과정의 수직적 통합과 개인과 사회생활의 수평적 통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은 그 동안 연령별로 구분된 폐쇄적 학교교육과 조직화되지 않은 채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된 사회교육을 통합 재편성함으로써 교육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를 이룩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김종서(1993)는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

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통합적 차원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이러한 동향과 달리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다양한 평생교육 개념규정들을 기초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을 나름대로 정의해본다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에만 국한되던 교육자원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지역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연령, 지역의 제한성을 제거하고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을 극대화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지역 국가의 성장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의미한다.

<표 2-1> 평생교육의 개념구조

기 준	구 분
학습자의 연령	유아교육 - 아동교육 - 청소년교육 - 성인교육
교육의 장	가정교육 - 학교교육 - 사회교육
학교교육과의 시간적 관계	학령전 교육 - 학교교육 - 계속교육
직업과의 관계	직업준비교육 - 현직교육 - 순환교육

자료 : 양병찬 외, 「평생교육방법론」, 서울:교학사, 2001.

나. 평생교육의 시대적요구와 필요성

평생교육론 대두의 사회적 상황성은 ① 국제 개방화 시대의 평생교육, ② 고도의 첨단기술(high-tech)시대의 평생교육 ③ 지식정보화시대의 평생교육, ④ 실력주의 시대의 평생교육 ⑤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의 평생교육 ⑥ 생애주기의 변화와 평생교육, ⑦ 소외 극복과 가치관 함양 기제로서 평생교육이라는 일곱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최운실, 1997)

1) 국제개방화 시대의 평생교육

세계는 본격적인 지구촌 시대(Globalization)를 맞이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가 국경 없이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되는 본격적인 국제개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절대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한편, 생존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앞 다투어 치열한 경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사회 모든 부문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탐색에 극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 즉 국민 개개인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즉 국민의 인력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개발 차원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다원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개발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개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최대한으로 축적시키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력을 총 결집하는 총체적 교육의 시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기업의 교육적 역할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2) 고도의 첨단기술 시대의 평생교육

오늘의 사회는 첨단 기술의 하이테크가 부상되고 기술변동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본격적인 고도의 첨단기술사회와 컴퓨터를 통한 이상사회라 불리는 컴퓨터 피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컴퓨터피아의 세계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물질문명은 물론 인간의 내재적 의식상황까지도 모두 컴퓨터화되는 이른바 ‘컴퓨터혁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급속한 기술변동에 대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속적 순환교육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평생교육의 체제로 연결되게 된다. 무서운 속도로 변모해가는 컴퓨터 세계와 그 활용 보급으로 인하여 전산마인드를 기르고 컴퓨터를 실생활은 물론 전문직 직무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의 과제가 평생교육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3) 지식정보화 시대의 평생교육

현대 사회는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정보의 폭증과 조기 노후화를 통한 지식정보의 수명단축 현상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한번 배운 지식이나 한번 습득한 정보의 수명이 약50여년 이상 지속됨으로써 20세에 학교를 졸업할 때 보유하고 있던 지식정보는 70세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변함없이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최소한 1년 단위로 지식 정보의 수명이 다하고 변화되어 버림으로써 부단히 지식정보의 습득과 갱신을 위한 학습의 노력이 없이는 의미 있는 생존과 전문적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고속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직업을 존속시키는 최상의 무기가 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이를 위한 부단한 평생교육이 삶의 필수기제로 요청되고 있다.

4) 실력주의 시대의 평생교육

현대 사회에서는 연고주의와 학벌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지난날의 전통적 사회와

는 달리 실력과 능력 그리고 경력에 의해 좌우되는 이른바 실력능력사회(Meritocracy Society)의 속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때 능력변수를 측정하는 우선적인 기준의 하나는 바로 ‘자격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실력을 쌓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의 부단한 자기 개발 필요는 새로운 교육이념으로서의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연결되게 된다.

5)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평생교육

오늘날 직업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혁명 당시 불과 40여종에 불과하던 직종이 오늘날에는 수십만종으로 증가되었다. 새로운 직종이 빠른 속도로 분화·확산되고 있으며 직업세계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 직업세계 속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필연적으로 직업적 성취를 위한 계속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는 일부 전문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에 임하는 모든 직업인들의 평생의 과제로 요청됨으로써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를 절감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⁴⁾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동은 인간의 교육적 욕구충족이나 자기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6) 생애주기의 변화와 평생교육

과거 사회에서는 생애주기가 일과 학습, 여가라는 세 국면으로 단절되어 수직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들 생애주기가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의 주기와 학습의 주기와 여가의 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순환되며 평생에 걸쳐 혼재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생애주기로 인해 이제 학습의 시기는 더 이상 일생의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학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학습의 시기가 평생으로 재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은 새로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념이자 새로운 교육제도로 요청되고 있다.

2.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전체성, 통합성, 유연성, 민주성, 자기 충실성 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체성이란 개인의 일생에 걸친 교육에 관계한다. 평생교육은 취학 전 교육, 초·중등, 고등수준의 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과, 학교

4) 권이종 외, 「현대사회와 평생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1.

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통합할 것을 시도한다. 또한 통합성의 확보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이 상호 연관되고 상호 결합되어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⁵⁾ 평생교육이 모든 국가의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평생교육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평생교육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Lengrand에 따르면 첫째,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된다. 둘째, 평생교육은 지적, 정서적, 심미적, 직업적, 정치적, 신체적이라고 하는 다면적인 인간으로서 전체적, 구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셋째, 평생교육은 인격의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교육 간의 제휴와 통합을 의도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은 지식이나 인격이나 이성을 생성하고 있다는 변증법적 견해에서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탐구를 계속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간적 존재로 보고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독자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에 따라서 자발적, 자주적으로 발달과 성장을 계속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평생교육은 끊임없는 자기발달의 과정 그 자체가 교육이며, 교육은 성장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일곱째, 평생교육은 아직도 미숙한 시기에 일면만으로 결정하는 한정된 선별은 무익하고 유해한 것으로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일생동안 각 성장단계에서 남김없이 개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덟째, 평생교육은 교육을 친구, 가족, 직장, 교회, 정당, 노동조합, 클럽 등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로 확대시키려고 한다. 아홉째, 평생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때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이용 가능한 매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이나 사회의 능력에 적합한 것인지 어떤지를 유일한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열 번째, 평생교육에서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Dave에 따르면 첫째, 전체성(totality) -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 준형식적 교육 등을 통합, 제휴를 강화하는 것을 원리로 한다. 둘째, 통합성(integration) - 취학전 교육, 초·중등 교육, 중등 후 교육, 고등학교 등의 공간적인 통합을 기도한다. 셋째, 유연성(flexibility) - 학습내용과 교재, 교육, 학습의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넷째, 민주화(denocratization) -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일반대중이 평등하게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기회제공과 동기화(opportunity and motivation) - 학습활동은 사람들의 호기심, 학습탐구력에 기초하여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위하여 행해진다. 여섯째, 교육력(educability) - 학습자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전개되도록 학습방법, 체험의 부여, 평가방법, 변화개선의 방법 등에 주목하고 교육과 학습의 자주적 평성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일곱째, 다양한 전개형태(modes of operation) - 사람들의 생활은 전 생애에 걸쳐서 다채롭다.

5) 조용하, 「사회교육과 여가」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6) 최용화, “평생교육의 이념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그러므로 교육과 학습의 형태와 방법도 그에 상응하도록 다종다양하게 전개된다. 여덟째, 생활과 학습의 질(quality of life and learning) -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있다. 내외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 모든 개인은 그가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평생동안 계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행복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선이나 공동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아울러 일반적 인간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가치교육 및 인간교육도 조화롭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인간을 기르는 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생동안의 각 인간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역할, 필요 및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계획·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평생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교육적 자원, 수단, 또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일부로서의 학교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생동안 학습하려는 동기를 자극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여덟째,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식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외 교육을 보다 강화·확충 그리고 개편토록 해야 한다. 아홉째, 학교는 물론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여러 사회집단 혹은 조직은 보다 체계적이며 능률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⁷⁾

박용현·최정숙의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상의 특성은⁸⁾ 첫째,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이라는 다양한 개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평생교육은 자유로운 교육을 특색으로 한다. 셋째, 평생교육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그 특성으로 한다.

7) 김종서 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8) 박용현·최정숙, 「교육사회학」(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9)

〈표 2-2〉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이

구분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습동기	타율적(의무)	자율적
교육대상	획일적·동질적·특정인	다원적·이질적·보편적
입학전형	철저한 전형제, 지원제한	가능한 무제한
평가	입시·시험평가	자체/자율평가 중심
교육과정	미리 짜여진 교육과정	학습자가 결정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이론·입시·교원중심	세미나·토론 중심, 현장견학
교사역할	지식전달자	안내자·조력자
지식	미래의 효용도 중시	현재효용도 중시
목표	자격증 획득	자격증 및 교양
학습형태	출석	자율학습

자료 : 양병찬 외, 「평생교육방법론」, 서울:교학사, 2001.

〈표 2-2〉와 같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교육에 기대하는 교육의 기능은 학교교육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그 조직과 기능을 평생교육을 주축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한다면,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전체 교육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함께 교육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위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⁹⁾



제2절 각 국의 평생교육 추진현황

1.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및 성과¹⁰⁾

가.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배경과 선정 현황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도시가 대두된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서의 특색 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및 지역적 요구와 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으로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정보화의 발달로 국가발전에 있어 지역사회공동체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반구축과 국가발전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데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지자체·교육청 간의 공동협력 유도를 이끌어 내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에 의해서이다(양병찬, 2002)

9) 교육부, 「초·중등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활성화 종합연구 계획」, 1997

10)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표 2-3>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연도	선정 도시수(개)	선정 지자체
2001	3	경기 광명시, 대전 유성구, 전북 진안군
2002	3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부천시, 제주 제주시
2003	5	인천 연수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2004	8	서울 관악구,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2005	14	서울 성북구, 양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수원시, 충북 단양군, 제천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동구, 경남 김해시, 남해군

자료: 변종임 외,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2005

나. 평생학습도시사업 사업성과

1) 평생학습 인지도 향상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마다 다양한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활동, 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직원 평생교육연수 실시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의 인식 증대로 학습참여 동기 유발, 관심도가 제고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형성으로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와 함께 지자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지역사회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지역 주민의 교육 요구분석을 통해 희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 부천시와 같은 도시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 통합성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프로그램 수 변화를 살펴보면, 각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총수는 2001년 693개에서 2004년 7,686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4> 도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수 변화 추이

도시 \ 년도	2002	2003	2004
광명시	598	582	603
유성구	292	298	299
제주시	108	172	183
서귀포시	43	39	43
창원시	98	111	148
금산군	195	247	300
관악구	42	45	97

자료: 변종임 외,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2005

3) 평생교육 시설수의 증가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시설 수와 주민자치센터 수를 연도별로 종합하면 평생교육시설수는 2001년 779개, 2002년 1,320개, 2003년 2,263개, 2004년 3,888개로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평생교육시설 수는 광명시 583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해운대구 514개, 관악구 477개의 순이다.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의 차이는 있지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수도 2001년 131개에서 2002년 95개로 잠시 감소하다 2003년 131개, 2004년 279개로 증가하였다.

<표 2-5> 연도별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 운영 주민자치센터 수

구분 \ 년도	2001	2002	2003	2004
평생교육시설	779	1,320	2,263	3,888
주민자치센터	131	95	131	279

자료: 변종임 외,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2005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각 시설 및 단체간 연계협력의 공고히 되고 있으며, 공동 연수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역량 및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인적 물적 정보자원 공유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관 정비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해 학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 총 235개가 참여하여 시민 학습서비스 통합화를 유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사업 총합은 2001년 3개, 2002년 54개, 2003년 95개, 2004년 321개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지역사회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함양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마을단위 이장 연수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및 기초역량을 증진시켰으며, 평생교육 공감대 형성, 전문성을 함양하였다. 19개 평생학습도시의 연수 실시 횟수를 보면, 2001년 4회, 2002년 6회, 2003년 26회, 2004년 130회로 급증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을 확충하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있다. 실제로 학습도시마다 평생교육사의 배치가 증가하고 있다.

6) 지방자치단체 투자 증대

조례제정, 장기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장기투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조성을 통한 시민교육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현장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조례가 제정되었고, 1인당 평생교육예산이 많은 지역일수록 네트워크 기관수가 증가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기관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대개의 도시에 있어서 평생교육 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생교육 예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인구변동이나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7)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거의 모든 학습도시에 평생교육 추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11개 도시에서 이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추진조직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놓았다. 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2001년에는 창원시밖에 없었으나, 2004년 현재 진안군과 유성구를 제외한 17개 도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도시는 2001년 유성구만 있었으나, 2004년에는 전체 평생학습도시 중 13개 도시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 정보인프라기반 구축은 2001년 광명시와 유성구 2개 도시에서 2003년 4개 도시, 2004년 크게 증가하여 11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조례제정은 물론 홈페이지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 등 평생교육관련 투입요소들은 2004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선진외국의 평생학습 추진사례

가. 일본

1) 학습도시 만들기

일본의 평생교육은 이념적으로는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을 비롯하여 OECD의 순환교육 등 선진국들의 교육개혁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개혁은 그 목표를 ‘평생학습사회’에 두고 이를 위한 체제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정책 과제인 ‘평생학습체계로의 전환’은 평생교육의 통합화단계에서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단계로 다시 평생학습체계 이행단계, 진흥단계, 평생학습체제의 제도화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이념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방화의 총화인 총체적 구조전환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본이 가지는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득영, 1995)

최초로 도시의 평생학습화를 선언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모델이 되었던 가케가와시는 시장이 평생학습의 개념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의 평생교육 정책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는 1977년 취임하면서부터 평생교육을 제창하여 「지역학」수평적 통합과 「생애학」수직적 통합의 확립을 목표로 평생학습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평생학습의 개념을 투입하고 실천하고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평생학습 체계로의 이행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가운데 추진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골격은 평생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의 연계, 교육시설의 복합화, 문교시설 설비의 네트워크화 및 인텔리전트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및 도시만들기 운동 등으로 요약된다.(이희수 외, 2000)

2) 시사점

일본의 평생교육의 지역화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부터 평생학습 체계로의 이행이라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평생학습 만들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지역의 재활과 재생을 위하여 평생학습 개념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만들기를 하고 있다.

둘째, 가케가와시에서 평생학습운동은 지역적 특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가케가와시의 특수성과 문화와 산업정책을 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속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셋째, 국민 각자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참가를 촉진시키며 평생학습을 가일층 진흥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희수 외, 2001)

나. 영국

1) 평생교육 정책기관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생학습은 가정교육, 지역사회 교육, 전통적인 성인 교육, 계속·고등교육, 계속 직업교육 등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포괄하는 형태의 광의의 용어이다. 평생학습은 교육 공급자 주도의 '교육'에서 개별화된 학습으로의 전환을 대변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개인의 학습경험을 더 강조하는 대신에 교육 제공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덜어준다. 영국의 평생학습 문화의 진흥은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들 간의 연계·협조를 의미하는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전체의 모든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습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학습도시 건설과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요약된다.(이희수 외, 2000)

① 평생학습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정보공학과 평생학습을 접목시켜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비전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국가 학습망이다. 영국정부는 1998년부터 교육수준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을 목표로 국가 학습망(National Grid for Learning, NGfL)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http://www.ngfl.gov.uk/ngfl>). 국가학습망사업은 2002년까지 모든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사회센터를 국가학습망(National Grid for Learning, NGfL) 즉 인터넷에 연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영국교육정보원'(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gency)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학습망은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넘어서 영국을 네트워킹 학습사회로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 Ufi)

영국의 평생교육 정신인 파트너십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핵심제도가 바로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 Ufi)이다. Ufi의 건학이념은 산업계와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있다. Ufi는 영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다. 즉 영국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영국의 학습도시 만들기는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는 도시, 타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협력, 운영체제를 유도한 후, 영국 전역에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각 도시, 타운, 지역사회가 학습도시 만들기 운영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여 이 자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독특한 현안을 상호 이해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평생교육 정책에 있어서 중앙 집중화를 추진하면서도 평생학습

이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읍, 면, 동 곧 지역사회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학습도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Longworth, 2000)

2) 시사점

영국에서는 1995년에 '평생학습(Lifetime Learning)'을, 1997년에는 '학습시대(Learning Age)'를, 1999년에는 '성공학습(Learning To Succeed)'을 각각 발표하여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도구주의적 평생학습, 개인주의적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학습망(NGfL) 구축,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네트워킹의 촉진과 네트워킹 학습사회의 건설, 산업대학(Ufi)설치,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자원의 연계 운영 및 학습문화 건설,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통한 평생교육 자원의 총체적 공유 및 학습 공동체실현은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유지 및 활성화의 기반은 정신적으로는 파트너쉽을, 물리적으로는 컴퓨터통신망에 기초한 국가학습망사업을 통해 학습자원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학습공동체,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건설하는 일임을 시사한다.

다. 독일

1) 학습도시 만들기

독일의 학습도시 만들기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고용촉진과 관련되어 있다. 독일의 시민대학(VolkhochSchule)은 덴마크로부터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19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 시민대학은 각 도시마다 설치되어 현재 100여개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재정은 지방자치 단체주와 시가 각각 1/3씩 부담하고, 본인이 1/3을 부담한다. 또한 시민대학이 국가주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독지가들에 의해 전국 시민대학의 약 15%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대학의 공식적 교육과정은 첫째, 성인학습자가 사회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청강생과정, 둘째, 성인학습자를 위한 박사 후 과정(Post Doc) 셋째, 5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2) 시사점

독일은 직업전문 기술교육을 중요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삶의 의미추구와 관련된 교육과 사회변화적응과 같은 생존교육을 중요시한다. 특히 독일은 빈부에 따른 동독과 서독의 양극화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평생학습 만들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독일은 정책적인 학습과정과 교육영역에서의 다양한 노력, 대학교의 연구, R&D, 산업서비스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선도한 하

나의 좋은 예이다. 둘째, 독일의 학습도시는 지역의 행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미국

1) 학습도시 만들기

원래 미국은 거의 모든 행정부문에서 주정부의 권한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성인교육과 인적자원개발부문도 예외가 아니지만 클린턴 정부가 국가정보화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산업인력 정보화를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클린턴정부가 평생교육을 국가정보화정책의 실행전략으로 인식하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평생교육은 정보화와 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지역개발과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 성인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21세기 지역학습센터(21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1999년 백악관이 착수한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직업교육, 훈련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시사점

미국의 지역사회교육의 핵심은 지역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 학습지원시스템 개념과 자원간의 네트워크 개념이 강조된다. 이러한 미국의 학습도시의 시사점은 첫째, 미국은 최근 정보화사업이나 직업교육, 훈련부문과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학습지역 만들기를 구상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전통적인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1세기 지역사회교육센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주 전역의 지역학습센터에 기반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대학 내 숙박시설을 갖춘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계체제를 결성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77년 일본의 가케가와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OECD, UNESCO 등에서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정부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실무담당자, 일반인들도 평생교육에 대해 서서히 인지해 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기관의 실태조사 위주로 연구하거나 최근엔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과,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평생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평생교육관련 선행연구는 제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제주시민 평생학습 요구조사와 제주시 평생교육기관·단체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방안,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의 서귀포시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제주교대 김민호교수의 제주도보에 수록한 제주평생학습도시의 육성방안, 2002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태준의 석사논문인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제주지역 대학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2002)의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정도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 대상으로는 실태조사와 욕구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 실태 및 만족도,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제시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연구들을 분석해 보았다.

1. 평생교육 실태 및 만족도, 욕구조사에 대한 기존연구

평생교육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2002년 김태준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에서는 가설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별로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등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취업, 전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자기발전 및 자아실현을 위해, 교양 및 여가선용을 위해, 사회참여 또는 봉사를 위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직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학력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 인지경로는 신문 및 광고전단, 우연히 듣게 되어서, 인터넷통신, 주위사람들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의 기대정도에서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평생교육 만족도에서는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평생교육받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교육장소가 떨어져서, 사회적 인정도가 낮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연령,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 외(1999) 평생교육 요구분석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월평균수입, 종교에 따라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평생교육 참여이유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교양 및 자기개발,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으로 응답하여, 월평균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평생교육 기관은 성별, 거주지, 직업, 월평균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평생교

육의 장애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월평균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엄현숙(2002)의 석사학위논문 《학부모·지역주민들의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 및 요구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설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연령, 학력, 학부모·지역주민(관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참여한 프로그램별로는 연령,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부모인지 지역주민인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에 대한 정보획득경로와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부문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에로사항은 연령, 학력, 관계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의 연구에서도 평생교육 실태, 욕구조사에서는 주로 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해석하였고, 대부분 성별, 학력, 연령, 소득수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이기환의 박사학위논문; 평생학습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분석(2003), 권두승, 이경아의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성인교육 참여를 제고방안(1999) 제주시평생학습센터의 제주시민 평생교육 요구조사(2005) 등)



2. 평생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기존연구

평생교육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경우와 활성화방안을 위한 설문구성을 다시 한 후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가 주최한 2005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의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공동체형, 직업능력개발형, 지역사회통합형, 산업기반혁신형 등 학습도시 유형별 다양한 활성화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역활성화 핵심전략은 학습도시로, 도시특성화는 유관사업으로 연계해야 한다. 셋째, 학습성과 활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류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사회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정표 외(2005) 《평생교육훈련제도의 발전전략-국가인적자원 비전》에서도 이론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의 평생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 및 고용정보를 쉽게 접하고, 진로 및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평생 직업교

육훈련체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일과 학습간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질 높고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학점 및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 기회 및 활용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고시키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한다. 여섯째, 학교 및 대학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물질·인적자원의 공유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은아(2003)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석사논문에서는 실태조사, 욕구조사와 더불어 활성화방안 설문문을 다시 구성한 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일한 프로그램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교육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평생교육 기관별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은 결코 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역할분담을 통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지역 평생교육 정보에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안내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습자들의 교육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이희수 외(2000)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방안은 이론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고, 경개개발연구원(2000)의 평생교육활성화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양병찬(2004)의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고인아(2004)의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연구-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정수천(2001)의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통한 이론연구 위주로 다양한 평생교육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대전대학교 대학원 관현근(2002)의 석사논문 평생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에 활성화방안 문항을 별도 구성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교육기관의 역할은 중복된 경우도 많았다.

3. 본 연구의 위상

기존의 평생교육 실태 및 만족도, 욕구조사는 대부분 별도의 가설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분석하여 분석에 따른 해석과 제언위주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의 설정과 검증절차를

거쳤다. 또한 제주도의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 및 욕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표본수가 적은 한계점은 있지만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인지도, 실태 및 만족도와 평생교육 욕구, 주체별 활성화방안을 설문조사 함으로써 주체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제주도실정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제 3 장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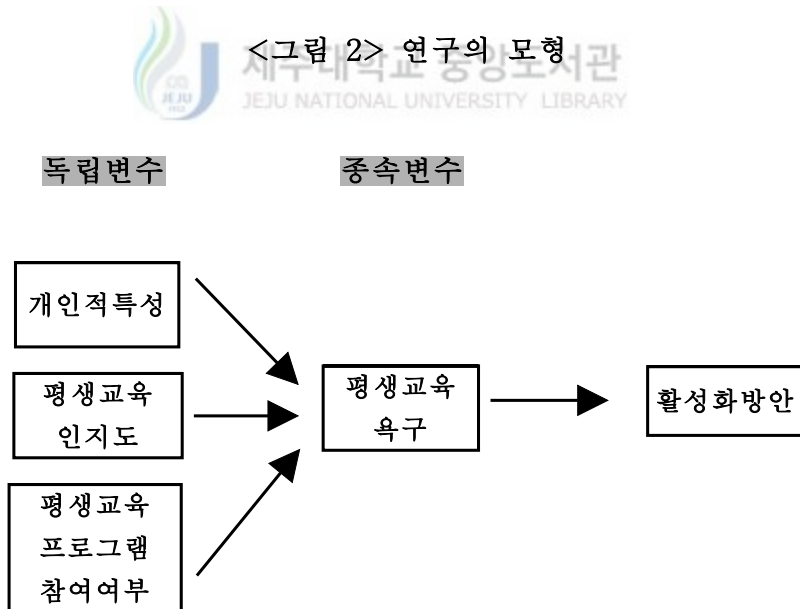
제1절 조사설계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실태 및 만족도, 평생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민의 개인적 특성, 평생교육 인지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제주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종속변수로 정하였다. 각 변수의 설정이유는 다음의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 고찰을 토대로 실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형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2.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평생교육 욕구이다. 평생교육 욕구에는 참여욕구, 수강하고 싶은 강좌·장소·교수법 등을 포함한다.

2) 독립변수

가. 개인적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성

① 성별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 외(1999)의 평생교육 요구분석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평생교육 기관과, 평생교육의 장애요인에서 성별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고인아의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연구」(2004)에서는 남자 42.7%, 여자 55.2%로 여성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초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박사팀의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의향에 남자가 49.3%, 여자는 60.2%의 비율로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② 연령

제주시민 평생학습 요구조사(제주시 평생학습센터 2003)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이 50세이상(3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 28.3%, 40~49세 27.2%, 30세 미만 10.3%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제주대 김태준(2002)의 석사학위논문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에서는 연령구분을 20-30대, 40대, 50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등록하게 된 동기와, 평생교육의 기대정도에서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설문분석을 하고 있었고, 5세 또는 10세의 간격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표본량이 적음을 감안하여 10세의 간격을 두고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③ 거주지역

2002년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인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의 평생교육

요구분석」에서 보면 제주시 79.8%, 서귀포시 4.8%, 북제주군 11.4%, 남제주군 4.0%로 제주시가 매우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요구분석」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거주자가 70.8%, 중소도시 26.0%, 군(읍·면) 3.2%로 대도시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별로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산북과 산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사회경제적 특성

① 최종학력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졸이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5%로 대졸 이상의 성인 참여비율인 39.6%의 1/5수준에 해당되어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불평등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고인아의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연구」(2004)에서는 고졸자가 5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자 17.3%, 대학졸업자 15.8% 순이었으며, 수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엄현숙(2002)의 석사학위논문 학부모·지역주민들의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 및 요구분석에서는 학력을 고졸이하 대졸이상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참여한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예로사항에서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최종학력변수가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를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이상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② 소득수준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요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100-200만원 이 46.8%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하 23.6%, 200-300만원 20.3%, 300만원 이상 9.3%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평생교육 참여이유에서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교양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주 이용하는 평생교육 기관과, 평생교육 장애요인에서도 월평균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주시민 평생학습 요구조사(제주시 평생학습센터 2003)에서는 100만원-199만원 38.3%, 200-299만원 22.8%, 100만원 이하 22.4%, 300만원 이상 16.6%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전체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③ 직업

2002년 제주대 김태준의 석사논문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에서는 직업을 전문직, 행정사무직, 영업·상업, 농·임·수산직,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평생교육에 등록하게 된 동기에서 직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희수 외(2003)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주부의 참여율이 46.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이 27%, 학생 7.2%, 기타 직장인 19.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통계청, 고용통계에서 직업분류로 사용하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수축산업 종사자,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과 함께 이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 기타도 포함하여 9개의 직업군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나. 평생교육 인지도

평생교육 인지도란 평생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나의 척도이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도에 실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실태분석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마다 다양한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활동, 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직원 평생교육연수 실시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평생학습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의 인식 증대로 학습참여 동기유발, 관심도 제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형성으로 평생학습 요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화의 2002년 대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평생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자 64.5%, 여자 64.2%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인지도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평생교육 인지도가 있는 주민, 인지도가 없는 주민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2005년 초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박사팀의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 연구」 결과, 한국 성인의 23.6%가 2004년 1년동안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었고,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75.4%가 평생교육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도에 실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실태분석연구」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의 증가와 함께 지자체이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이 높아져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아의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연구」(2004)에서 평생교육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3%는 평생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에 평생교육 욕구에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평생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3-1-1> 변수와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구성
종속 변수	평생교육욕구		
독립 변수	인구통계 적특성	성별	남, 여로 구분
		연령	20~50대 이상을 10세단위로 세분
		거주지	산북, 산남으로 구분
	사회경제 적특성	교육수준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이상으로 세분
		소득수준	월평균 99만원이하-400만원이상 100만원 단위로 세분
		직업	통계청 고용통계를 참고, 기타 포함 9개 종류로 세분
	평생교육 인지도	평생교육 인지도여부	인지도 유/무로 구분
평생교육 참여	평생교육 참여여부	평생교육참여 유/무로 구분	

3. 가설의 설정

(1) 인구통계적 특성별 가설

인구통계적 특성별 변수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가설과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제주도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성별) 여성일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 1-2. (연령) 연령이 많을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 1-3. (거주지역) 산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2) 사회경제적 특성별 가설

사회경제적 특성별 변수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선정하였고, 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가설과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교육수준)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2-2. (소득수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2-3. (직업) 화이트칼라일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3) 평생교육 인지도 가설

평생교육 인지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 가설과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제주도민의 평생교육에 인지도 여부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평생교육 인지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주민들이 인지가 없는 주민들보다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 것이다.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가설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 가설과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 것이다.

4.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1) 연구의 모집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민 전체이다.

2) 연구의 표본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55만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적절한 표본수인 322명(정대연, 사회통계학)을 기준으로 불성실하게 응답될 가능성과, 전부 회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350명의 표본 중 평생교육수강자와 미참여자간의 욕구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본추출방법 중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평생교육참여자와 미참여자로 구분하였다. 평생교육참여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평생교육 참여율인 23.6%(최돈민 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조사(2005))를 고려하여 배포일 당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중인 제주대, 제주교대, 탐라대, 방송통신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350개의 표본의 23%정도인 80부를 배포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지역별 인구비례(성별, 연령별)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산북(제주시, 북제주군) 201부, 산남(서귀포시, 남제주군) 69부인 총 27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지도, 실태 및 만족도, 욕구를 알아보고 보다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형태는 <표3-1-1>과 같다.

<표 3-1-2> 설문지 구성내용 및 변수

변수	구분	변수의 내용	문항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거주지	6개
독립변수	평생교육기관 인지도	평생교육기관 인지여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인지하였는지 등	3개
독립변수	평생학습의 교육실태 및 만족도	평생교육과정 참여여부, 이용년수, 참여기관 · 교육과정 · 시간 · 교육운영 · 수강료 · 시설 등의 만족도 · 실질적인 도움정도	8개
종속변수	평생학습의 욕구	평생학습 필요성,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 · 기관형태 · 교육방법 등	8개
평생학습의 활성화 방안			4개

다. 자료의 수집

2005년 10월11일~10월20일까지 9일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중복질문, 보기 간의 더블배열, 문항의 어색함 등 설문지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연구자와 설문지배포경험이 있는 행정학과 학생 3명의 도움을 얻어 2005년 10월22일부터 11월4일까지 약 2주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대학부설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후 회수된 76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5부를 제외한 71부와 일반시민 대상으로 배포한 270부 중 242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 46부가 평생교육 참여자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117부를 자료처리하였고, 평생교육 미참여자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배포한 설문 중 196부가 해당되어 최종 313부의 설문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조사대상기관	배부	회수	자료처리
제주대학교	35	33	32
제주교육대학교	25	23	21
탐라대학교	5	5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15	15	13
일반시민	270	46	46
계	350	122	117

<표 3-1-4> 미참여자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구분	인구수	구성비(%)	표본수		회수율 구성비(%)		
			배부	회수			
산북	제주시	194,526	100(52.9)	71.2	201	148	75.5%
	북제주군	67,433	100(18.3)				
산남	서귀포시	56,712	100(15.4)	28.8	69	48	24.5%
	남제주군	49,376	100(13.4)				
계	368,047			270	196		

자료: 제주도. 2004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2004년 12월31일 현재 인구수임.
구성비란의 ()는 제주도 대비의 비율임.

라. 자료의 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업을 거친 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평생교육기관 인지도 및 실태파악 및 욕구를 검정하기 위하여 윈도우용 spss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 개인적 특성과 평생교육 인지도,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평생교육욕구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t-test)과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만족도와 평생교육욕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만족도분석에서는 모수검정방법에서 사용하는 ANOVA검정(F검정)을 활용하여 설문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검정의 기준으로 적용할 유의수준은 * $p < .1$ ** $p < .05$ *** $p < .01$ 즉,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 및 가설의 검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1) 성별에서는 남성이 118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였고, 여성이 195명으로 62.3%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2) 연령은 처음 설문조사 당시는 60대까지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나 60대의 표본비율이 너무 적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0대와 60대 이상을 50대 이상으로 합쳐, 표본을 재분류하였다. 20대가 75명(24%), 30대 90명(28.8%), 40대 92명(29.4%), 50대 이상 56명(17.9%)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3) 거주지별 분류도 처음에는 2개시, 2개군으로 모두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군지역의 설문회수율이 너무 낮아 연령과 마찬가지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남, 산북으로 재분류하였다. 산북(제주시, 북제주군)이 238명(76%) 산남(서귀포시, 남제주군)은 75명(24%)의 비율로 회수되어 제주도민 지역별 거주인구와 비교해봤을 때, 산남의 표본비율에 비해 산북(특히, 제주시)의 표본비율이 다소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2-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8	37.7
	여	195	62.3
연령	20대	75	24.0
	30대	90	28.8
	40대	92	29.4
	50대 이상	56	17.9
거주지	산북	238	76%
	산남	75	24%
계		313	100.0

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봤을 때, 1) 최종학력에서는 중졸이하자가 23명(7.3%), 고졸 114명(36.4%), 전문대졸 75명(24%), 4년제 대졸 89명(28.4%), 대학원이상 12명(3.8%)의 비율로 조사되어 고졸~4년제대졸자의 비율이 88.9%로 아주 높았다. 2) 월평균소득분포는 99만원 이하 25명(8%), 100~199만원 94명(30%), 200~299만원 89명(28.4%), 300~399만원 72명(23%), 400만원 이상 33명(10.5%)의 비율로 중산층 이상의 표본이 많이 조사되었다. 3) 직업군을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57명(18.2%), 사무직 49명(15.7%), 서비스·판매직 48명(15.3%), 농수축산업 종사자 15명(4.8%),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7명(2.2%), 자영업 32명(10.2%), 전업주부 41명(13.1%), 학생 39명(12.5%), 기타 25명(8%)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2-2>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최종학력	중졸이하	23	7.3
	고졸	114	36.4
	전문대졸	75	24.0
	4년제 대졸	89	28.4
	대학원이상	12	3.8
월평균소득	99만원 이하	25	8.0
	100만원~199만원	94	30.0
	200만원~299만원	89	28.4
	300만원~399만원	72	23.0
	400만원 이상	33	10.5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57	18.2
	사무직	49	15.7
	서비스·판매직	48	15.3
	농수축산업 종사자	15	4.8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7	2.2
	자영업	32	10.2
	전업주부	41	13.1
	학생	39	12.5
	기타	25	8.0
계		313	100.0

2. 조사분석의 내용

가. 평생교육기관의 인지도 분석

평생교육기관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313명 중 226명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72.2%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봤을 때 월평균소득과, 거주지를 제외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약 60%의 낮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학원 이상은 83.3%의 아주 높아 인지도가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들이 교육분야에 비교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인지도가 77.4%로 남성의 63.6%보다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30대가 거의 80% 가까운 인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대는 58.7%의 비교적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3,40대로 갈수록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인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87.8%로 가장 높은 반면, 학생이 48.7%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화이트칼라계열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로 취업을 위한 공부에는 관심이 많지만 평생교육에는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연령, 직업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3-1> 평생교육 인지도

독립변수		평생교육 인지도		전체 (n=313)	χ^2
		알고있다	모르고있다		
성별	남	75(63.6)	43(36.4)	118	7.053**
	여	151(77.4)	44(22.6)	195	
연령	20대	44(58.7)	31(41.3)	75	11.874**
	30대	70(77.8)	20(22.2)	90	
	40대	74(80.4)	18(19.6)	92	
	50대 이상	38(67.9)	18(32.1)	56	
최종학력	중졸이하	14(60.9)	9(39.1)	23	8.318*
	고졸	76(66.7)	38(33.3)	114	
	전문대졸	53(70.7)	22(29.3)	75	
	4년제 대졸	73(82.0)	16(18.0)	89	
	대학원 이상	10(83.3)	2(16.7)	12	

<표 3-3-1> 계속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8(72.0)	7(28.0)	25	1.514
	100~199만원	70(74.5)	24(25.5)	94	
	200~299만원	66(74.2)	23(25.8)	89	
	300~399만원	48(66.7)	24(33.3)	72	
	400만원 이상	24(72.7)	9(27.3)	33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40(70.2)	17(29.8)	57	19.351**
	사무직	43(87.8)	6(12.2)	49	
	서비스·판매직	37(77.1)	11(22.9)	48	
	농수축산업종사자	9(60.0)	6(40.0)	15	
	기능·기계단순노무자	5(71.4)	2(28.6)	7	
	자영업	24(75.0)	8(25.0)	32	
	전업주부	29(70.7)	12(29.3)	41	
	학생	19(48.7)	20(51.3)	39	
거주지	기타	20(80.0)	5(20.0)	25	.063
	산북	171(71.8)	67(28.2)	238	
	산남	55(73.3)	20(26.7)	75	
계		226(72.2)	87(27.8)	313(100)	

p<.1 **p<.05 ***p<.01

평생교육 최초인지경로에서도 평생교육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월평균소득, 거주지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변의 지인을 통한 인지경로가 93명인 41.2%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신문이 40명(17.7%), 포스터가 34명(15%), 스스로 찾아서 24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주변지인(32%)을 통한 인지통로 다음으로 신문(22.6%)을 통한 인지율이 높았고, 이어서 포스터, 스스로 찾아서의 순서인 반면, 여성은 주변지인(45.6%)을 통한 인지도가 남자에 비해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신문과 포스터가 15.2% 같은 비율로 나타나 성별 인지통로가 p<.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문 등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어떤 매체를 통하기 보다는 주위의 이웃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과 다니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20~50대 이상 모두 주변 지인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지만 30대는 그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았고, 20대는 2위로 포스터를 선택한 반면 30~50대는 2

위로 신문을 선택하였으며,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tv광고로도 평생교육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력별로 중졸이하자는 신문에 의한 인지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고졸자는 주변지인을 통한 인지도가 53.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는 주변지인을 통한 인지 다음으로 신문과 포스터를 통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이나 행정관리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신문, 인터넷, tv등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반면 학생은 포스터를 통해서, 전업주부들은 스스로 찾아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 학력, 직업별 인지도 모두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평생교육 최초 인지경로

독립변수		평생교육 최초 인지경로							전체 (n=226)	X ²
		TV 광고	신문	인터넷	포스 터	현수 막	주변 지인	스스 로		
성별	남	6 (8)	17 (22.6)	4 (5.3)	11 (14.6)	4 (5.3)	24 (32)	9 (12)	75	12.489*
	여	9 (5.9)	23 (15.2)	7 (4.6)	23 (15.2)	5 (3.3)	69 (45.6)	15 (9.9)	151	
연령	20대	2 (4.6)	2 (4.6)	10 (23.2)	4 (9.3)	19 (44.1)	6 (13.9)	43	40.613**	
	30대	4 (5.7)	13 (18.5)	6 (8.5)	12 (17.1)	3 (4.2)	23 (32.8)	9 (12.8)		70
	40대	7 (9.3)	17 (22.6)	2 (2.6)	10 (13.3)		31 (41.3)	8 (10.6)		75
	50대 이상	4 (7.1)	8 (14.3)	1 (1.8)	2 (3.6)	2 (3.6)	20 (35.6)	1 (1.8)		38
최종 학력	중졸이하	2 (13.3)	6 (40)	1 (6.6)			5 (30.4)	1 (6.6)	15	46.811**
	고졸	5 (6.4)	10 (13)		9 (11.7)	7 (9.1)	41 (53.2)	5 (6.4)	77	
	전문대졸	3 (5.6)	12 (22.6)	6 (11.3)	8 (15.1)	1 (1.9)	18 (33.9)	5 (9.4)	53	
	4년제 대졸	4 (5.5)	9 (12.5)	4 (5.5)	15 (20.8)	1 (1.4)	26 (36.1)	13 (18.1)	72	
	대학원이상	1 (11.1)	3 (33.3)		2 (22.2)		3 (33.3)		9	

<표 3-3-2> 계속

월평균 소득	99만원이하	2 (11.1)	4 (22.2)	2 (11.1)	1 (5.6)	1 (5.6)	8 (22.3)		18	21.946
	100~199만원	5 (8.1)	12 (19.3)	4 (6.4)	12 (19.3)	1 (1.6)	29 (46.8)	7 (11.3)	62	
	200~299만원	5 (7.5)	17 (25.4)	2 (3)	11 (16.4)	4 (5.9)	21 (31.3)	7 (10.4)	67	
	300~399만원	1 (2.1)	5 (10.6)	2 (4.2)	7 (14.9)	2 (4.2)	22 (46.8)	8 (17.1)	47	
	400만원이상	2 (8.3)	2 (8.3)	1 (4.2)	3 (12.5)	1 (4.2)	13 (54.1)	2 (8.3)	24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3 (7.7)	9 (23.1)	2 (5.1)	4 (10.2)		17 (43.6)	4 (10.2)	39	74.578**
	사무직	3 (7.1)	7 (16.6)	6 (14.2)	8 (19.1)	1 (2.4)	13 (31)	4 (9.5)	42	
	서비스· 판매직	1 (2.8)	7 (19.4)	1 (2.8)	4 (11.1)		20 (55.6)	4 (11.1)	36	
	농수축산업 종사자		2 (20)		2 (20)	2 (20)	4 (40)		1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1 (20)			1 (20)		3 (60)		5	
	자영업	4 (16)	5 (20)	1 (4)	2 (8)	2 (8)	11 (44)		25	
	전업주부	2 (6.9)	6 (20.7)	1 (3.4)	3 (10.3)		12 (41.4)	5 (17.2)	29	
	학생		1 (5.3)		5 (26.3)	2 (10.5)	8 (42.1)	3 (15.8)	19	
	기타	1 (5)	3 (15)		5 (25)	2 (10)	5 (25)	4 (20)	20	
거주 지	산북	10	33	7	25	6	71	19	170	3.427
	산남	5	7	4	9	3	23	5	56	
계		15 (6.6)	40 (17.7)	11 (4.9)	34 (15)	9 (4)	93 (41.2)	24 (10.6)	226	

*p<.1 **p<.05 ***p<.01

평생교육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냐는 물음에 41.8%가 교양교육기관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24.4%가 문화활용기관, 17.4%가 전문교육기관, 11% 여가활용기관, 5.3%가 창업보조기관이라고 대답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생교육기관이 여가활용기관이나 창업보조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교양교육, 문화활용,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차이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교양교육기관으

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3~40대는 여가활용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고, 50대 이상의 연령대는 교양교육기관, 문화활용기관, 전문교육기관으로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창업보조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교양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고학력자일수록 교양교육기관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월평균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많이 보였는데, 교양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전문교육기관과 문화활용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차이는 모두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고소득자일수록 평생교육기관을 교양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여가활용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차이가 90% 신뢰수준에서, 교양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직종일수록 평생교육기관을 비교적 여가활용기관, 교양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북, 산남지역 모두 교양기관, 문화활용기관, 전문교육기관, 여가활용기관, 창업보조기관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산북지역은 문화활용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산남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표 3-3-3> 평생교육기관 인지정도

독립변수		② 기 관 뜻(중복체크)					계
		여가활용 기관	교양교육 기관	전문교육 기관	문화활용 기관	창업보조 기관	
성별	남	18	81	28	52	11	190
	여	40	140	64	77	17	208
χ^2		1.347	.352	2.928*	.637	.033	
연령	20대	9	57	19	30	5	120
	30대	16	60	18	35	13	142
	40대	21	70	14	43	8	136
	50대 이상	12	34	19	21	2	88
χ^2		3.589	5.696	1.716	1.724	5.712	
학력	중졸이하	3	9	11	6		29
	고졸	17	76	35	48	11	187
	전문대졸	16	53	21	25	10	125

	4년대졸	20	73	23	45	7	168
	대학원이상	2	10	2	5		19
	χ^2	2.781	18.358***	5.407	7.343	5.408	
월평균 소득	99만원미만	3	11	5	9	4	32
	100~199만원	18	67	38	29	8	160
	200~299만원	17	64	23	41	8	153
	300~399만원	11	55	18	32	6	122
	400만원이상	9	24	8	18	2	61
	χ^2	2.924	9.852**	8.208*	8.043*	1.920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0	44	15	31	5	105
	사무직	13	39	13	19	3	87
	서비스·판매직	11	25	16	15	6	73
	농수축산업	2	12	4	6	1	25
	종사자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2	4	1	4		11
	자영업	3	20	11	13	4	51
	전업주부	12	28	11	17	5	73
	학생	4	33	9	15	1	62
	기타	1	16	12	9	3	41
	χ^2	13.635*	17.615**	7.069	7.319	5.273	
거주지	산북	47	170	65	102	23	
	산남	11	51	27	27	5	
	χ^2	.975	.323	2.075	1.107	.629	

*p<.1 **p<.05 ***p<.01

나. 조사대상의 실태 및 만족도 분석

1) 평생교육 참여자의 실태의 만족도 분석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 전체 117명 중 참여기관 대상(대학평생교육시설 중심) 표본 중 관광대는 설문지 배포시점인 10월에 평생교육과정이 끝난 상태였고, 한라대는 비협조적이어서 제주도의 대학기관 중 표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제주대 평생교육참여자 32명, 제주교대 21명, 탐라대 5명, 방송통신대 13명으로 71개의 표본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270개의 설문 중 46개도 평생교육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총 117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독립변수별로 살펴본다면 먼저 성별은 남성 35명으로 29.9%, 여성 82명으로 70.1%의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제주도 전체의 성별비율(남 37.7%, 여 62.3%)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령은 20대 10.3%, 30대 36.8%, 40대 38.5%, 50대 이상

14.5%의 비율로 3,40대의 참여율이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참여자의 연령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중졸자와 대학원이상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반면, 고졸이상 4년제 대졸자들이 95%정도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저학력자, 고학력자보다는 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개인의 발전, 교양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자보다 100~199만원의 소득자들이 29.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고, 99만원 이하자가 8.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20.5%, 전업주부 18.8%,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19.2%, 서비스·판매직이 14.5% 등으로 전체의 7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화이트칼라계열과 전업주부들이 평생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산북지역이 78.7%의 산남지역이 21.3%의 참여율을 보였다. 산북지역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평생교육기관 참여자를 대학부설기관으로 조사하여 제주시에 대학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산북지역 중 특히 제주시 거주자가 많이 포함되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표 3-4-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실태

구분	빈도	비율	
참여기관	제주대	32	27.4
	제주교대	21	17.9
	탐라대	5	4.3
	방송통신대	13	11.1
	일반시민	46	39.3
성별	남	35	29.9
	여	82	70.1
연령	20대	12	10.3
	30대	43	36.8
	40대	45	38.5
	50대 이상	17	14.5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6
	고졸	43	36.8
	전문대졸	30	25.6
	4년제 대졸	38	32.5
	대학원이상	3	2.6

<표 3-4-1> 계속

월평균소득	99만원 이하	10	8.5
	100만원~199만원	35	29.9
	200만원~299만원	29	24.8
	300만원~399만원	30	25.6
	400만원 이상	13	11.1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	16.2
	사무직	24	20.5
	서비스·판매직	17	14.5
	농수축산업 종사자	4	3.4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6
	자영업	12	10.3
	전업주부	22	18.8
	학생	5	4.3
	기타	11	9.4
거주지	산북	92	78.7
	산남	25	21.3
계		117	100.0

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실태 요소들 중 이용년수를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6개월 미만이 50.4%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미만이 24.8%, 1년~1년6개월이 9.4%, 1년6개월~2년이 6%, 2년이상인 9.4%로 75.2%가 1년미만의 참여실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평생교육 과정이 보통 2개월~3개월 과정으로 학교교육과는 달리 과정 하나가 끝나면 다른 과정을 다시 수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과정이 없을 경우 1,2과정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별로는 성별,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거주지별로는 이용년수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고, 연령만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미만의 이용년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30대가 6개월~1년6개월의 이용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고르고 높게 분포되어 있었다. 40대는 6개월 미만이 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이용년수가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특징은 1년 이상 이용율이 3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오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이용년수

독립변수		① 이용년수					전체 (n=117)	X ²
		6개월 미만	6개월~1 년	1년~1 년6개 월	1년6개 월~2년	2년 이상		
성별	남	18(51.4)	11(31.4)	2(5.7)	1(2.9)	3(8.6)	35	2.473
	여	41(50)	18(22)	9(11)	6(7.3)	8(9.7)	82	
연령	20대	8(66.7)	3(25)		1(8.3)		12	21.937*
	30대	25(58.1)	7(16.3)	8(18.6)		3(7)	43	
	40대	18(40)	16(35.5)	2(4.4)	5(11.1)	4(8.9)	45	
	50대 이상	8(47.1)	3(17.6)	1(5.9)	1(5.9)	4(23.5)	17	
최종 학력	중졸이하	2(66.6)				1(33.3)	3	22.422
	고졸	23(53.5)	11(25.6)	4(9.3)		5(11.6)	43	
	전문대졸	19(63.3)	5(16.7)	4(13.3)	1(3.3)	1(3.3)	30	
	4년제 대졸	15(39.4)	11(29)	3(7.9)	5(13.1)	4(10.5)	38	
	대학원이상		2(66.6)		1(33.3)		3	
월평균 소득	99만원이하	5(50)	2(20)	2(20)		1(10)	10	21.115
	100~199만원	21(60)	9(25.7)	3(8.6)		2(5.7)	35	
	200~299만원	12(41.4)	5(17.2)	5(17.2)	3(10.3)	4(13.8)	29	
	300~399만원	17(56.6)	8(26.7)	1(3.3)	1(3.3)	3(10)	30	
	400만원이상	4(30.8)	5(38.5)		3(23)	1(7.7)	13	
직업	전문·기술 · 행정관리 직	14(73.7)	3(15.8)	1(5.2)		1(5.2)	19	29.236
	사무직	7(29.2)	9(37.5)	4(16.6)	2(8.3)	2(8.3)	24	
	서비스·판 매직	9(52.9)	5(29.4)	1(5.9)		2(11.8)	17	
	농수축산업 종사자	3(75)				1(25)	4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1(33.3)	2(66.6)				3	
	자영업	5(41.6)	4(33.3)		1(8.3)	2(16.7)	12	
	전업주부	10(45.4)	4(18.2)	3(13.6)	3(13.6)	2(9.1)	22	
	학생	5(100)					5	
거주지	기타	5(45.4)	2(18.2)	2(18.2)	1(9.1)	1(9.1)	11	7.380
	산북	51(55.4)	18(19.6)	9(9.8)	6(6.5)	8(8.7)	92	
	산남	8(32)	11(44)	2(8)	1(4)	3(12)	25	
계		59(50.4)	29(24.8)	11(9.4)	7(6)	11(9.4)	117	

* p<.1 ** p<.05 *** p<.01

참여기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학부설기관 참여율이 5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부보조기관 12%, 사설문화센터 11.3%, 주민자치센터 8.7%, 지역사회복지관 8%, 시민단체부설기관이 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학부설기관 대상자 위주로 조사하여 대학부설기관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고, 그 외로 도민들은 정부보조기관(박물관, 도서관 등)과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85.7%가 대학부설기관 평생교육시설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고, 다음으로 정부보조기관(11.4%), 주민자치센터와 사설문화센터가 각각 8.6%, 시민단체부설이 5.7%의 분포를 보였고, 지역사회복지관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대학부설기관 참여경험(68.3%)이 남성보다 적은 반면 여러 기관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었는데, 정부보조기관에 19.5%, 사설문화센터(15.9%), 지역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각각 13.4%, 시민단체부설기관 8.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 대학부설기관에서는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 근처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는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대학부설기관에는 남성도 들을 수 있는 부동산재테크, 화술지도자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어 남성들은 대부분이 대학부설기관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학부설기관에 2,3,40대는 70%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58.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고, 20대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자가 없고, 정부보조기관과 시민단체부설, 지역사회복지관의 참여경험자도 각 1명으로 대부분 대학부설기관과 사설문화센터에 참여경험이 있었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민단체부설기관에 참여율(40대 11.1%, 50대 이상 17.6%)을 보였고, 주민자치센터도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모두 10%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정부보조기관과 시민단체부설기관에서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학부설기관에 참여경험이 있었고, 99만원이하 소득자는 사설문화센터, 시민단체부설, 지역사회복지관에 참여경험이 없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설문화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종사자와 기능·기계·단순노무자, 학생의 평생교육기관 참여비율이 매우 낮았다.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모든 기관을 다 이용해 보았고,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은 시민단체부설기관을 제외한 다양한 기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설문화센터만이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산북지역은 대학부설기관에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보조기관, 주민자치센터, 사설문화센터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민단체부설기관과 지역사회복지관의 참여율은 비교적 낮았다. 산남지역은 대학부설기관이 가장 높은 참여경험을 보이지만 산북지역보다 그 비율이 낮았고, 타 기관에는 골고루 참여경험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산남지역은 산북지역과 다르게 지역사회복지관과 시민단체부설기관 이용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대학부설기관은 $p < .01$ 수준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북지역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대학부설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수강하기 용이하지만 산남지역은 탐라대학이 위치해 있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 주변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시민단체부설기관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 3-4-3> 참여기관

독립변수		② 참여기관(중복체크)						계 (n=156)
		대학부설 기관	사설문화 센터	정부보조 기관	시민단 체부설	지역사회 복지관	주민자치 센터	
성별	남	30(85.7)	3(8.6)	4(11.4)	2(5.7)		3(8.6)	42
	여	56(68.3)	13(15.9)	16(19.5)	7(8.5)	11(13.4)	11(13.4)	114
χ^2		3.823*	1.102	1.131	0.275	5.182**	0.546	
연령	20대	10(83.3)	3(25)	1(8.3)	1(8.3)	1(8.3)		16
	30대	31(72.1)	6(14)	4(9.3)		3(7.0)	5(11.6)	49
	40대	35(77.8)	3(6.7)	9(20)	5(11.1)	3(6.7)	5(11.1)	60
	50대 이상	10(58.8)	4(23.5)	6(35.3)	3(17.6)	4(23.5)	4(23.5)	31
	χ^2		2.943	4.577	6.743*	6.704*	4.692	5.333
최종 학력	중졸이하	2(66.7)				1(33.3)		3
	고졸	30(69.8)	9(20.9)	6(14)	3(7)	6(14)	6(14)	60
	전문대졸	22(73.3)	3(10)	4(13.3)	1(3.3)	2(6.7)	3(10)	35
	4년대졸	29(76.3)	4(10.5)	9(23.7)	5(13.2)	2(5.3)	4(10.5)	53
	대학원이상	3(100)		1(33.3)			1(33.3)	5
χ^2		1.616	3.530	2.940	2.932	4.402	2.054	
월평균 소득	99만원미만	8(80)		2(20)			1(10)	11
	100~199만원	28(80)	4(11.4)	4(11.4)	2(5.7)	2(5.7)	2(5.7)	42
	200~299만원	19(65.5)	3(10.3)	6(20.7)	4(13.8)	2(6.9)	5(17.2)	39
	300~399만원	21(70)	5(16.7)	3(10)	1(3.3)	4(13.3)	5(16.7)	39
	400만원이상	10(76.9)	4(30.8)	5(38.5)	2(15.4)	3(23.1)	1(7.7)	25
χ^2		2.192	5.452	6.370	4.432	5.209	2.956	

<표 3-4-3> 계속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6(84.2)	1(5.3)	2(10.5)	1(5.3)		1(5.3)	21
	사무직	18(75)	3(12.5)	3(12.5)		2(8.3)	2(8.3)	28
	서비스·판매 직	9(52.9)	6(35.3)	4(23.5)		3(17.6)	2(11.8)	24
	농수축산업	3(75)			1(25)			4
	종사자	3(100)	1(33.3)					4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9(75)	3(25)	2(16.7)	2(16.7)	1(8.3)	3(25)	20
	자영업	14(63.6)	2(9.1)	6(27.3)	3(13.6)	3(13.6)	5(22.7)	33
	전업주부	5(100)			1(20)			6
	학생	9(81.8)		3(27.3)	1(9.1)	2(18.2)	1(9.1)	16
	기타							
χ^2		9.229	13.743*	6.321	9.065	6.081	7.183	
거주지	산북	73(79.3)	11(12)	16(17.4)	6(6.5)	6(6.5)	11(12)	123
	산남	13(52)	5(20)	4(16)	3(12)	5(20)	3(12)	33
χ^2		7.549***	1.077	.027	.831	4.193**	.000	
계		81(54)	17(11.3)	18(12)	9(6)	12(8)	13(8.7)	150

*p<0.1 **p<.05 ***p<.01

참여했던 과정으로는 전문자격증과정이라는 응답이 45명(25.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특별강좌 29명(16.6%), 교양과정과 생활체육과정이 똑같이 26명(14.9%), 컴퓨터과정 20명(11.5%), 외국어과정 19명(10.9%), 학점인정과정 5명(2.9%), 예술음악과정 4명(2.3%)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에의 직접적인 활용도가 높은 전문자격증과정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특별강좌, 교양, 생활체육과정, 컴퓨터과정, 외국어과정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점인정과정과 예술음악과정은 그다지 높은 호응도를 보이지 않았다. 호응도가 낮은 학점인정과정, 예술음악과정 대신 시민교육, 부모 역할 등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은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3-4-4> 참여과정(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전문자격증과정	45	25.9
교양과정	26	14.9
외국어과정	19	10.9
컴퓨터과정	20	11.5
생활체육과정	26	14.9
예술음악	4	2.3
학점인정	5	2.9
특별강좌	29	16.6
계	174	100

* p<.1 ** p<.05 *** p<.01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일저녁이 32.5%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주말저녁이 26.5%, 평일오전이 23.1%, 주말오전이 10.2%, 비정기적 특강이 7.7%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녁시간대를 선호하고 있었고, 오전시간은 주말보다는 평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독립변수별로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성별, 거주지별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주말저녁(45.7%)에 가장 많이 참여한 반면 여성은 주말저녁(18.3%)에 비해, 평일저녁(35.4%)과 평일오전(28%)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것은 남성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주말을 선호하고 있었고, 여성은 주말보다는 오히려 남편이나 자녀들이 직장, 학교로 출근한 후의 시간인 평일 오전과 평일 저녁시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산북지역은 주말저녁(30.1%), 평일저녁(28%), 평일오전(24.7%), 주말오전(11.8%), 비정기적 특강(5.4%)순의 응답을 한 반면, 산남지역은 평일저녁 선호도가 50%로 매우 높았고 이어서 평일오전과 비정기적 특강이 16.7%로 같은 비율을 보였고, 주말저녁(12.5%), 주말오전(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북지역은 직장생활자가 많아 저녁시간 특히 평일보다는 주말 저녁시간을 더욱 선호하면서, 특강보다는 꾸준히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산남지역은 과수원 등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 오히려 주말보다는 농사일이 끝난 평일저녁 선호도가 높았고, 반면 주말시간 참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수강하는 비정기적 특강도 산북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4-5> 참여시간

독립변수		④ 참여 시간					전체 (n=117)	x ²
		평일 오전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저녁	비정 기적 (특강)		
성별	남	4(11.4)	9(25.7)	2(5.7)	16(45.7)	4(11.4)	35	12.512**
	여	23(28)	29(35.4)	10(12.2)	15(18.3)	5(6.1)	82	
연령	20대	6(50)	3(25)		3(25)		12	15.163
	30대	8(18.6)	12(27.9)	5(11.6)	12(27.9)	6(14)	43	
	40대	9(20)	17(37.8)	3(6.6)	13(28.9)	3(6.6)	45	
	50대 이상	4(23.5)	6(35.3)	4(23.5)	3(17.6)		17	
최종 학력	중졸이하	1(33.3)	2(66.7)				3	15.790
	고졸	10(23.2)	16(37.2)	3(7)	13(30.2)	1(2.3)	43	
	전문대졸	9(30)	8(26.7)	5(16.6)	5(16.6)	3(10)	30	
	4년제 대졸	7(18.4)	12(31.6)	4(10.5)	11(28.9)	4(10.5)	38	
	대학원이상				2(66.6)	1(33.3)	3	
월평균 소득	99만원이하	3(30)	3(30)	2(20)	1(10)	1(10)	10	14.165
	100~199만원	11(31.4)	11(31.4)	2(5.7)	9(25.7)	2(5.7)	35	
	200~299만원	2(6.9)	10(34.5)	6(20.7)	8(27.6)	3(10.3)	29	
	300~399만원	7(23.3)	10(33.3)	1(3.3)	9(30)	3(10)	30	
	400만원이상	4(30.7)	4(30.7)	1(7.7)	4(30.7)		13	
직업	전문·기술 · 행정관리 직	2(10.5)	3(15.8)	5(26.3)	8(42.1)	1(5.2)	19	35.737
	사무직	2(8.3)	8(33.3)	1(4.2)	9(37.5)	4(16.5)	24	
	서비스·판 매직	5(29.4)	6(35.3)	2(11.7)	4(23.3)		17	
	농수축산업 종사자	1(25)	1(25)	1(25)	1(25)		4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1(33.3)		1(33.3)	1(33.3)	3	
	자영업	2(16.7)	5(41.6)	1(8.3)	3(25)	1(8.3)	12	
	전업주부	7(31.8)	9(40.9)	1(4.5)	4(18.2)	1(4.5)	22	
	학생	2(40)	2(40)		1(20)		5	
기타	6(54.5)	3(27.3)	1(9.1)		1(9.1)	11		
거주 지	산북	23(24.7)	26(28)	11(11.8)	28(30.1)	5(5.4)	93	9.877**
	산남	4(16.7)	12(50)	1(4.2)	3(12.5)	4(16.7)	24	
계		27(23.1)	38(32.5)	12(10.2)	31(26.5)	9(7.7)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비교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도움정도에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 도움 됨)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의 약 77%가 평생교육과정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2.2%는 보통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명 있었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본다면 모든 요인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약 7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약 7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경우가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자 응답자 중 1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8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매우 느끼고 있었고, 이어서 50대 이상 76.5%, 30대 74.5%, 20대 66.7%의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젊은 층보다 고령층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별로는 고소득으로 갈수록 도움되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종사자와 단순노무자는 100%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어서 사무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3.3%가 서비스판매직과 전업주부도 80%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산북지역은 77.5%가 평생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30%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산남지역은 75%가 평생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은 12.5%로 산북지역보다 비교적 낮았다.

<표 3-4-6> 만족도 분석(도움정도)

독립변수		전체 (n=117)	평균	표준 편차	t값/F값
성별	남	35	2.03	.71	.578
	여	82	1.94	.79	
연령	20대	12	2.08	.79	.327.
	30대	43	2.02	.71	
	40대	45	1.89	.83	
	50대 이상	17	1.94	.75	

<표 3-4-6> 계속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00	1.00	.641
	고졸	43	2.02	.71	
	전문대졸	30	1.90	.66	
	4년제 대졸	38	2.00	.90	
	대학원이상	3	1.33	.58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20	.42	.588
	100~199만원	35	1.91	.74	
	200~299만원	29	1.97	.68	
	300~399만원	30	1.87	.78	
	400만원이상	13	2.15	1.14	
직업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19	2.16	.76	.615
	사무직	24	1.79	.72	
	서비스·판매직	17	1.94	.66	
	농수축산업 종사자	4	1.75	.5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00	.00	
	자영업	12	1.83	.72	
	전업주부	22	1.95	.95	
	학생	5	2.40	.55	
	기타	11	2.09	.94	
거주지	산북	93	1.92	.80	1.311
	산남	24	2.12	.61	
계		117			

* p<.1 ** p<.05 *** p<.01

참여기관별로 평생교육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비교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참여기관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제주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탐라대, 방통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부문은 교수자질면에서 제주대가 1.78 점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는 교통편의와 사회적인정성 부문에서 방통대가 3.08점으로 보통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① 교육목적에서는 방통대(1.85)와 제주대(1.93)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탐라대(2.80)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② 교수방법에서는 제주대(1.9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목적과 마찬가지로 탐라대(2.60)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교육목적과 교수방법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③ 교수자질에서는 제주대가 평균 1.78로 매우 만족한다는 범위에서 응답을 하였고, 일반시민(2.63)과 탐라대(2.60)가 만족도가 낮았고, 99%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대의 평생교육수강자가 많은 것은 교수자질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에서는 다른 문항과는 달리 탐라대(2.00)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어서 제주대(2.09), 제주교대(2.52), 일반시민(2.59), 방통대(2.62) 순으로 나타났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⑤ 시설설비면에서는 제주대(2.09)가 가장 만족하고 있었고, 제주교대, 탐라대, 방통대, 일반시민은 2.60~2.77의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⑥ 교육비용면에서는 제주대(2.16)가 가장 만족율이 높고, 제주교대(2.90)가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⑦ 교통편의 면에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 중 제주대(2.38)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방통대(3.08)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⑧ 교육효과면에서는 제주대(2.13)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탐라대(2.80)가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⑨ 사회적인정면에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제주대가 2.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통대가 3.0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평생교육이 사회적인정으로 이어지도록 보완한다면 참여율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교육효과와 사회적인정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4-7> 참여기관에 따른 만족도 분석

독립변수	빈도	① 교육 목적			② 교수 방법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제주대	32	1.93	.56	4.069**	1.91	.78	3.798**
제주교대	21	2.14	.91		2.43	.93	
탐라대	5	2.80	.45		2.60	1.14	
방통대	13	1.85	.55		2.23	.60	
일반시민	46	2.37	.61		2.54	.62	
계	117						

독립변수	빈도	③ 교수 자 질			④ 교 육 시 간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제주대	32	1.78	.68	8.598***	2.09	.69	3.815**
제주교대	21	2.29	.78		2.52	.60	
탐라대	5	2.60	.89		2.00	.00	
방통대	13	2.23	.60		2.62	.65	
일반시민	46	2.63	.64		2.59	.65	
계	117						

독립변수	빈도	⑤ 시 설 설 비			⑥ 교 육 비 용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제주대	32	2.09	.59	5.888***	2.16	.68	3.794**
제주교대	21	2.76	.70		2.90	.83	
탐라대	5	2.60	.89		2.40	.55	
방통대	13	2.77	.73		2.46	.88	
일반시민	46	2.74	.61		2.65	.71	
계	117						

독립변수	빈도	⑦ 교 통 편 의			⑧ 교 육 효 과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제주대	32	2.38	.87	2.385*	2.13	.66	4.402**
제주교대	21	2.57	.68		2.43	.68	
탐라대	5	2.80	.84		2.80	.84	
방통대	13	3.08	.76		2.54	.66	
일반시민	46	2.78	.76		2.72	.58	
계	117						

독립변수	빈도	⑨ 사 회 적 인 정		
		평균	표준편차	F
제주대	32	2.31	.78	3.736**
제주교대	21	2.81	.87	
탐라대	5	2.40	.55	
방통대	13	3.08	.86	
일반시민	46	2.93	.80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목적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거주지만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2점대를 보이면서 교육목

적에 만족하고 있었다. 저연령인수록 교육목적에 만족도가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이 2.00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졸(2.12), 전문대졸(2.17), 4년제대졸(2.24), 중졸이하(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별로는 300~499만원에서 평균 2.00으로 가장 높았고, 200~299만원, 100~199만원, 99만원 이하. 대학원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산북지역의 만족도가 평균 2.11로 산남지역(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8> 교육목적 만족도

독립변수		① 교육 목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11	.63	.339
	여	82	2.20	.71	
연령	20대	12	2.08	.67	.092
	30대	43	2.16	.57	
	40대	45	2.20	.79	
	50대 이상	17	2.18	.73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33	.58	.238
	고졸	43	2.12	.66	
	전문대졸	30	2.17	.59	
	4년제 대졸	38	2.24	.82	
	대학원이상	3	2.00	.00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40	.70	1.581
	100~199만원	35	2.23	.55	
	200~299만원	29	2.07	.59	
	300~399만원	30	2.00	.74	
	400만원 이상	13	2.46	.97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	2.05	.71	.658
	사무직	24	2.04	.55	
	서비스·판매직	17	2.35	.61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00	.82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00	.00	
	자영업	12	2.17	.58	
	전업주부	22	2.23	.92	
	학생	5	2.00	.71	
	기타	11	2.45	.69	

<표 3-4-8> 계속

거주지	산북	93	2.11	.68	3.974**
	산남	24	2.42	.65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수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월평균소득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대학원이상(1.67), 월평균 200~299만원(2.07), 기능 기계 단순노무자(2.00)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2.41), 월평균 99만원이하(2.50), 농수축산업종사자(2.50), 산남지역 거주자(2.54)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4-9> 교수방법 만족도

독립변수	② 교수 방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26	.74	.282
	여	82	2.34	.80	
연령	20대	12	2.33	.89	.232
	30대	43	2.35	.65	
	40대	45	2.24	.91	
	50대 이상	17	2.41	.71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33	.58	1.416
	고졸	43	2.16	.69	
	전문대졸	30	2.40	.81	
	4년제 대졸	38	2.47	.86	
	대학원이상	3	1.67	.58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50	.53	2.089*
	100~199만원	35	2.49	.61	
	200~299만원	29	2.07	.70	
	300~399만원	30	2.17	.87	
	400만원 이상	13	2.61	1.12	

<표 3-4-9> 계속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	2.26	.87	.954
	사무직	24	2.13	.74	
	서비스·판매직	17	2.47	.62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50	.58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00	.00	
	자영업	12	2.25	.75	
	전업주부	22	2.27	.94	
	학생	5	2.20	.84	
	기타	11	2.82	.75	
거주지	산북	93	2.26	.79	2.529
	산남	25	2.54	.72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수자질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별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학원이상(1.67), 월평균소득 200~299만원(2.03), 전문기술행정관리직종사자(2.00), 등 고학력자와 화이트칼라계열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2.47),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2.50), 400만원이상(2.54)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고소득자에 비해 중산층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4-10> 교수자질 만족도

독립변수		③ 교수자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17	.71	.871
	여	82	2.32	.80	
연령	20대	12	2.25	.97	.783
	30대	43	2.33	.71	
	40대	45	2.16	.80	
	50대 이상	17	2.47	.72	

<표 3-4-10> 계속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33	.58	1.140
	고졸	43	2.13	.71	
	전문대졸	30	2.40	.81	
	4년제 대졸	38	2.37	.79	
	대학원이상	3	1.67	1.15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50	.53	1.710
	100~199만원	35	2.40	.74	
	200~299만원	29	2.03	.68	
	300~399만원	30	2.17	.83	
	400만원 이상	13	2.54	.97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9	2.00	.75	.985
	사무직	24	2.21	.93	
	서비스·판매직	17	2.47	.51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25	.5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00	.00	
	자영업	12	2.25	.75	
	전업주부	22	2.27	.83	
	학생	5	2.20	.84	
	기타	11	2.73	.79	
거주지	산북	93	2.21	.79	2.631
	산남	24	2.50	.66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월평균소득, 직업,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은 95% 신뢰수준에서 최종학력은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50대, 이상, 30대, 20대 순서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대학원이상(2.00)과 고졸자(2.23), 전업주부(2.18)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졸이하(3.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2.53), 농수축산업 종사자(2.50)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산남지역 거주자가 산북지역보다 교육시간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4-11> 교육시간 만족도

독립변수		④ 교육 시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34	.59	.635
	여	82	2.45	.71	
연령	20대	12	2.67	.89	2.917**
	30대	43	2.56	.59	
	40대	45	2.20	.63	
	50대 이상	17	2.47	.72	
최종학력	중졸이하	3	3.00	.00	2.254*
	고졸	43	2.23	.65	
	전문대졸	30	2.50	.73	
	4년제 대졸	38	2.55	.60	
월평균소득	대학원이상	3	2.00	1.00	.747
	99만원이하	10	2.50	.71	
	100~199만원	35	2.54	.61	
	200~299만원	29	2.28	.75	
	300~399만원	30	2.43	.63	
직업	400만원 이상	13	2.31	.75	.728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	2.53	.77	
	사무직	24	2.42	.72	
	서비스·판매직	17	2.47	.62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50	.58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33	.58	
	자영업	12	2.33	.78	
	전업주부	22	2.18	.59	
	학생	5	2.40	.55	
	기타	11	2.73	.65	
거주지	산북	93	2.44	.68	.485
	산남	24	2.33	.64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직업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문항에 비해 전체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업군에서는 학생(2.20)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반면, 자영업(2.75)과 사무직(2.67)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2.70), 학력별로는 중졸이하(3.00), 월평균소득별로는 99만원이하(2.70)의 만족도가 집단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12> 시설설비 만족도

독립변수		⑤ 시설 설 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11	0.63	1.169
	여	82	2.20	0.71	
연령	20대	12	2.67	.98	1.057
	30대	43	2.63	.62	
	40대	45	2.42	.69	
	50대 이상	17	2.70	.69	
최종학력	중졸이하	3	3.00	1.00	1.346
	고졸	43	2.40	.69	
	전문대졸	30	2.67	.71	
	4년제 대졸	38	2.66	.67	
	대학원 이상	3	2.33	.58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70	.67	.598
	100~199만원	35	2.69	.68	
	200~299만원	29	2.48	.57	
	300~399만원	30	2.47	.78	
	400만원 이상	13	2.54	.88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9	2.26	.65	1.802*
	사무직	24	2.67	.70	
	서비스·판매직	17	2.53	.72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25	.5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33	.58	
	자영업	12	2.75	.62	
	전업주부	22	2.55	.74	
	학생	5	2.20	.84	
	기타	11	3.09	.54	

<표 3-4-12> 계속

거주지	산북	93	2.55	.70	.227
	산남	24	2.63	.71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월평균소득만이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용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항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2.67), 학력별로 중졸이하(3.33)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대체로 저연령, 저학력자일수록 교육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자영업자(2.67)와 사무직(2.67)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13> 교육비용 만족도

독립변수		⑥ 교육 비용			F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5	2.49	.61	.162
	여	82	2.55	.83	
연령	20대	12	2.67	.98	.165
	30대	43	2.53	.77	
	40대	45	2.49	.76	
	50대 이상	17	2.53	.72	
최종학력	중졸이하	3	3.33	.58	1.941
	고졸	43	2.47	.76	
	전문대졸	30	2.47	.86	
	4년제 대졸	38	2.71	.69	
	대학원이상	3	2.33	.58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60	.70	2.068*
	100~199만원	35	2.80	.76	
	200~299만원	29	2.28	.70	
	300~399만원	30	2.43	.82	
	400만원 이상	13	2.54	.78	

<표 3-4-13> 계속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9	2.16	.76	1.331
	사무직	24	2.67	.92	
	서비스·판매직	17	2.53	.80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25	.5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00	1.00	
	자영업	12	2.67	.65	
	전업주부	22	2.59	.67	
	학생	5	2.40	.55	
	기타	11	2.90	.70	
거주지	산북	93	2.47	.77	2.485
	산남	24	2.75	.74	
계		117			

*p<.1 **p<.05 ***p<.01

개인적특성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최종학력은 90% 신뢰수준에서 거주지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문항과 달리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졸이하(2.47), 99만원 이하(2.69), 기능기계단순노무자(2.33), 학생(2.40)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산남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3.00) 매우 낮았다. 산남지역에는 교육기관에의 낮은 접근성이 교육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시설과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 개설이 시급하다.

<표 3-4-14> 교통편의 만족도

독립변수	⑦ 교통 편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74	.85	.452
	여	82	2.63	.78	
연령	20대	12	2.75	.87	.228
	30대	43	2.70	.83	
	40대	45	2.67	.85	
	50대 이하	17	2.53	.51	

<표 3-4-14> 계속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67	.58	2.305*
	고졸	43	2.47	.80	
	전문대졸	30	2.57	.86	
	4년제 대졸	38	2.97	.72	
	대학원이상	3	2.67	.58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30	.67	.627
	100~199만원	35	2.69	.80	
	200~299만원	29	2.72	.80	
	300~399만원	30	2.73	.87	
	400만원 이상	13	2.62	.77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9	2.58	.77	.386
	사무직	24	2.88	.80	
	서비스·판매 직	17	2.65	.79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50	.58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33	.58	
	자영업	12	2.67	.98	
	전업주부	22	2.64	.79	
	학생	5	2.40	1.14	
	기타	11	2.73	.79	
거주지	산북	93	2.58	.77	5.461**
	산남	24	3.00	.83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최종학력,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거주지별로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통편의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산남지역(2.79)에 비해 산북지역(2.41)이 교육효과에 만족하고 있었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전문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평균 2.33으로 같은 수준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200~299만원(2.28), 직업별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2.21)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4-15> 교육효과 만족도

독립변수		⑧ 교육 효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54	.66	.335
	여	82	2.46	.69	
연령	20대	12	2.75	.45	1.578
	30대	43	2.70	.67	
	40대	45	2.67	.71	
	50대 이상	17	2.53	.72	
최종학력	중졸이하	3	2.33	.58	1.131
	고졸	43	2.44	.73	
	전문대졸	30	2.33	.71	
	4년제 대졸	38	2.68	.57	
월평균소득	대학원이상	3	2.33	.58	1.456
	99만원이하	10	2.70	.48	
	100~199만원	35	2.57	.61	
	200~299만원	29	2.28	.65	
	300~399만원	30	2.43	.77	
직업	400만원 이상	13	2.69	.75	1.403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	2.21	.79	
	사무직	24	2.54	.66	
	서비스·판매직	17	2.47	.62	
	농수축산업 종사자	4	2.25	.5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33	.58	
	자영업	12	2.75	.75	
	전업주부	22	2.36	.66	
	학생	5	2.60	.55	
	기타	11	2.91	.54	
거주지	산북	93	2.41	.65	6.383**
	산남	24	2.79	.72	
계		117			

*p<.1 **p<.05 ***p<.0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정 및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월평균소득,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변수만이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종속변수인 만족도 5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만족)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2.78)보다 남성(2.63)의 만족도가 높았고, 대체적으로 고연령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200~299만원 월평균소득자(2.52), 기능기계단순노무자(2.00)와 전문기술행정관리직(2.47)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4-16> 사회적인정 및 활용도 만족도

독립변수		⑨ 사회적인정 및 활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35	2.63	.65	.792
	여	82	2.78	.92	
연령	20대	12	2.92	.67	2.658*
	30대	43	2.98	.74	
	40대	45	2.53	.97	
	50대 이상	17	2.53	.72	
최종학력	중졸이하	3	3.00	.00	.875
	고졸	43	2.67	.92	
	전문대졸	30	2.87	.90	
	4년제 대졸	38	2.74	.72	
	대학원이상	3	2.00	1.00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	2.70	.67	.862
	100~199만원	35	2.77	.77	
	200~299만원	29	2.52	.95	
	300~399만원	30	2.80	.81	
	400만원 이상	13	3.00	1.00	

<표 3-4-16> 계속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9	2.47	.84	1.116
	사무직	24	2.79	.88	
	서비스·판매직	17	2.88	.60	
	농수축산업 종사자	4	3.00	.82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	2.00	1.00	
	자영업	12	2.75	.97	
	전업주부	22	2.59	.96	
	학생	5	2.80	.84	
	기타	11	3.18	.60	
거주지	산북	93	2.68	.82	2.130
	산남	24	2.96	.91	
계		117			

*p<.1 **p<.05 ***p<.01

2) 평생교육 미참여자의 실태분석

평생학습 프로그램 미참여자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전체 242명 중 196명(81%)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았고, 학력별로는 고졸자(46.7%)와 4년제대졸자(27.5%)로 가장 높은 비율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월평균소득에서는 99만원 이하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저임금일수록 평생학습 미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17>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자 실태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84	42.8
	여	112	57.2
연령	20대	63	32.1
	30대	47	24
	40대	47	24
	50대 이상	39	20

<표 3-4-17> 계속

최종학력	중졸이하	17	8.7
	고졸	72	36.7
	전문대졸	45	23
	4년제 대졸	54	27.5
	대학원이상	8	4.1
월평균소득	99만원 이하	14	7.1
	100만원~199만원	59	30.1
	200만원~299만원	61	31.1
	300만원~399만원	41	20.9
	400만원 이상	21	10.7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7	18.9
	사무직	25	12.7
	서비스·판매직	29	14.8
	농수축산업 종사자	13	6.6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5	2.6
	자영업	19	9.7
	전업주부	20	10.2
	학생	34	17.3
	기타	14	7.1
거주지	산북	146	74.4
	산남	50	25.6
계		196	100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잘몰라서 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가 33.2%, 필요성을 못느껴서도 16.3%를 차지하였다. 교육비가 비싸서,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아주 낮았다. 연령별로는 $p < .1$ 수준에서, 월평균소득, 직업별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독립변수를 살펴본다면,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62.9%가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3,40대는 잘몰라서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정보의 접근율을 높이고, 3,40대는 쉬는시간을 활용해서 직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월평균소득에서는 99만원이하 소득자는 잘몰라서 라는 응답이 64.3%로 매우 높았고, 필요성을 못느껴서와 시간이 없어서가 각 14.3%로 나타났

고, 소득이 높을수록 잘몰라서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와 필요성을 못느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70.6%, 기능기계단순노무자 66.6%, 전업주부 57%가 잘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 자영업 종사자는 20% 이상이 필요성을 못느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술직, 사무직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스스로로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학생·전업주부·단순노무자들에게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홍보가 필요하다.

<표 3-4-18> 참여하지 못한 이유

독립변수		① 참여하지 못한 이유						전체 (n=196)	X ²
		잘몰라 서	필요성 을 못느 껴서	시간이 없어서	교육 비가 싸 서	주변 에 교 육기 관이 없어 서	기타		
성별	남	37(44)	19(22.6)	26(31)			2(2.4)	84	7.738
	여	55(49)	13(11.6)	39(34.8)	1(0.9)	3(2.7)	1(0.9)	112	
연령	20대	39(62.9)	8(12.9)	14(22.6)		1(1.6)		62	23.345*
	30대	16(35.5)	10(22.2)	17(37.8)		2(4.4)		45	
	40대	16(32)	8(16)	22(44)	1(2)	2(4)	1(2)	50	
	50대 이상	21(53.8)	6(15.4)	12(30.8)				39	
최종 학력	중졸이하	10(58.8)	3(17.6)	3(17.6)			1(5.9)	17	23.590
	고졸	40(54)	13(17.6)	20(27)	1(1.4)			74	
	전문대졸	20(45.4)	4(9.1)	16(36.4)		2(4.5)	2(4.5)	44	
	4년제 대졸	21(39.6)	10(18.9)	21(39.6)		1(1.9)		53	
	대학원이상	1(12.5)	2(25)	5(62.5)				8	
월평 균 소득	99만원이하	9(64.3)	2(14.3)	2(14.3)	1(7.1)			14	36.064**
	100~199만원	31(51.7)	7(11.7)	18(30)		2(3.3)	2(3.3)	60	
	200~299만원	17(27.8)	13(21.3)	30(49.2)			1(1.6)	61	
	300~399만원	25(61)	6(14.6)	9(22)		1(2.4)		41	
	400만원이상	10(50)	4(20)	6(30)				20	

<표 3-4-18> 계속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1(30.6)	9(25)	16(44.4)				36	68.683**
	사무직	6(25)	5(20.8)	11(45.8)		1(4.2)	1(4.2)	24	
	서비스·판매직	15(50)	3(10)	9(30)		2(6.6)	1(3.3)	30	
	농수축산업종사자	6(46.1)	2(15.4)	5(38.5)				13	
	기능·기계단순노무자	4(66.6)		1(16.7)	1(16.7)			6	
	자영업	9(47.4)	4(21)	5(26.3)			1(5.3)	19	
	전업주부	12(57.1)	3(14.3)	6(28.6)				21	
	학생	24(70.6)	5(14.7)	5(14.7)				34	
	기타	5(38.5)	1(7.7)	7(53.8)				13	
거주지	산북	73(49.3)	22(14.9)	49(33.1)	1(.7)	1(.7)	2(1.4)	148	4.861
	산남	19(39.6)	10(20.8)	16(33.3)		2(4.2)	1(2.1)	48	
계		92(46.9)	32(16.3)	65(33.2)	1(0.5)	3(1.5)	3(1.5)	196	

*p<.1 **p<.05 ***p<.01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분석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균비교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필요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필요)에 가까울수록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졸이하, 99만원 이하, 기능기계단순노무자를 제외하고는 1점대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평생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적 특성별로 평생교육 필요욕구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90% 신뢰수준에서, 최종 학력과 월평균소득에서 95% 신뢰수준에서, 평생교육 인지도와 평생교육 참여여부에서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점수가 1.68로서 남성(1.81)보다 평생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1.62)가 30대(1.72), 20대(1.73), 50대 이상(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소득별로도 소득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기능기계단순노무자를 제외하고는 1.67~1.88의 비슷한 분포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별

로는 산북지역 산남지역 모두 1점대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 인지도가 있는 주민의 욕구가 1.65로 인지도가 없는 주민(1.97)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있던 주민들의 욕구(1.47)가 참여경험이 없는 주민(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5-1> 평생교육 필요 욕구

독립변수		평생교육 필요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118	1.81	.89	1.327
	여	195	1.68	.74	
연령	20대	75	1.73	.74	2.194*
	30대	90	1.72	.84	
	40대	92	1.62	.77	
	50대 이상	56	1.96	.85	
최종학력	중졸이하	23	2.13	.97	2.840**
	고졸	114	1.78	.77	
	전문대졸	75	1.72	.80	
	4년제 대졸	89	1.66	.78	
월평균소득	대학원이상	12	1.25	.62	2.748**
	99만원이하	25	2.08	1.04	
	100만원~199만원	94	1.68	.78	
	200만원~299만원	89	1.85	.78	
	300만원~399만원	72	1.67	.77	
직업	400만원 이상	33	1.48	.71	.901
	전문·기술·행정관리 직	57	1.75	.79	
	사무직	49	1.57	.79	
	서비스·판매직	48	1.67	.75	
	농수축산업 종사자	15	1.73	.80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7	2.29	1.11	
	자영업	32	1.69	.82	
	전업주부	41	1.78	.73	
	학생	39	1.82	.85	
기타	25	1.88	.88		

<표 3-5-1> 계속

거주지	산북	238	1.72	.82	.589
	산남	75	1.80	.73	
인지도	있다	226	1.65	.81	-3.160***
	없다	87	1.97	.74	
참여경험	있다	117	1.47	.66	-4.722***
	없다	196	1.90	.83	
계		313			

*p<.1 **p<.05 ***p<.01

희망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1~3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40.9%가 전문자격증과정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어서 외국어과정(17.6%), 교양과정(14.7%), 생활체육과정(12.8%)을 꼽고 있었다. 2순위로는 교양과정(25.6%)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이어서 전문자격증과정(21.7%), 생활체육과정(19.8%)이 꼽혔다. 3순위로는 생활체육과정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이어서 교양과정, 전문자격증과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3순위로는 예술, 음악과정과, 특별강좌과정을 희망하는 주민들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점은행제과정은 모든 순위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모든 순위에서 전문자격증과정을 선호하고 있었고, 순위가 낮아질수록, 교양과정과 생활체육과정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우선 이 세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선호도가 낮은 학점은행제과정 대신 다른 지역에서 개설되어 호응도가 높은 시민의식 함양과정, 부모역할교육 등을 새로운 신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3-5-2> 참여희망과정 실태

과정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문자격증과정	128	40.9	68	21.7	45	14.4
교양과정	46	14.7	80	25.6	62	19.8
외국어과정	55	17.6	33	10.5	31	9.9
컴퓨터교육과정	17	5.4	33	10.5	29	9.3
생활체육과정	40	12.8	62	19.8	66	21.1
예술, 음악과정	11	3.5	18	5.8	44	14.1
학점은행제과정	1	0.3	3	1.0	4	1.3
특별강좌과정	15	4.8	16	5.1	32	10.2
계	313	100	313	100	313	100

평생교육과정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관(37.1%)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관(23%), 정부보조기관(13.1%), 주민자치센터(1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는 최종학력, 월평균소득을 제외하고는 성별에서는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직업, 거주지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연령별, 인지도별, 참여여부별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대학부설평생교육관(39.8%) 다음으로 정부보조기관(16.1%), 지역사회복지관(14.4%), 주민자치센터(11.9%), 시민단체부설기관(10.2%)을 선호하고 있었고, 여성은 대학부설기관(35.4%)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관(28.2%), 주민자치센터(11.3%), 정부보조기관(11.3%)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에는 여성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서 남성보다 여성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이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40대가 대학부설기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선호하고 있었고, 2,5,60대는 3,40대에 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선호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자영업자들이 대학부설기관, 기능기계단순노무자와 전업주부·학생들은 지역사회복지관, 자영업자·학생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시민단체부설기관을 선호하고 있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산북지역은 대학부설기관 선호도(42.4%)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관(21.8%), 정부보조기관(12.2%), 주민자치센터(10.1%), 시민단체부설(7.1%), 사설문화센터(6.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산남지역은 지역사회복지관(26.7%)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학부설기관(20%), 정부보조기관(16%), 주민자치센터(16%), 사설문화센터(13.3%), 시민단체부설(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남지역에는 대학이 희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집 근처 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정부보조기관을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인지도가 있는 주민들은 43.8%가 대학부설기관을 선호하고 있었고 인지도가 없는 주민들은 지역사회복지관(34.5%)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대학부설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참여경험이 없는 주민들은 대학부설기관과 지역사회복지관을 비슷한 수준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가까운 복지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호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관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표 3-5-3> 참여하고 싶은 장소

독립변수		③ 참여하고 싶은 장소						전체 (n=313)	x ²
		대학 부설	사실 문화 센터	정부보 조기관	시민단 체부설	지역사 회복지 관	주민자 치센터		
성별	남	47(39.8)	9(7.6)	19(16.1)	12(10.2)	17(14.4)	14(11.9)	118	9.884*
	여	69(35.4)	16(8.2)	22(11.3)	11(5.6)	55(28.2)	22(11.3)	195	
연령	20대	23(30.7)	6(8)	12(16)	9(12)	20(26.7)	5(6.7)	75	37.106** *
	30대	38(42.2)	5(5.6)	14(15.6)	4(4.4)	15(16.7)	14 (15.6)	90	
	40대	43(46.7)	5(5.4)	10(10.9)	1(1.1)	20(21.7)	13 (14.1)	92	
	50대 이상	12(21.4)	9(16.1)	5(8.9)	9(16.1)	17(30.4)	4(7.1)	56	
최종 학력	중졸이하	3(13)	5(21.7)	2(8.7)	3(13)	6(26.1)	4(17.4)	23	23.894
	고졸	35(30.7)	9(7.9)	13(11.4)	9(7.9)	32(28.1)	16(14)	114	
	전문대졸	34(45.3)	5(6.7)	11(14.7)	3(4)	14(18.7)	8(10.7)	75	
	4년제 대졸	37(41.6)	6(6.7)	13(14.6)	7(7.9)	18(20.2)	8(9)	89	
	대학원이상	7(58.3)		2(16.7)	1(8.3)	2(16.7)		12	
월평균 소득	99만원이하	7(28)	3(12)	3(12)	4(16)	6(24)	2(8)	25	13.043
	100~199만원	38(40.4)	6(6.4)	15(16)	5(5.3)	19(20.2)	11 (11.7)	94	
	200~299만원	29(32.6)	7(7.9)	13(14.6)	6(6.7)	21(23.6)	13 (14.6)	89	
	300~399만원	30(41.7)	6(8.3)	4(5.6)	5(6.9)	19(26.4)	8(11.1)	72	
	400만원이상	12(36.4)	3(9.1)	6(18.2)	3(9.1)	7(21.2)	2(6.1)	33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27(47.4)	7(12.3)	10(17.5)	5(8.8)	3(5.3)	5(8.8)	57	61.114* *
	사무직	27(55.1)	1(2)	4(8.2)	3(6.1)	11(22.4)	3(6.1)	49	
	서비스·판매 직	15(31.3)	5(10.4)	8(16.7)	4(8.3)	3(6.1)	11 (22.4)	48	
	농수축산업 종사자	3(20)	1(6.7)	1(6.7)	1(6.7)	4(26.7)	5(33.3)	15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1(14.3)		1(14.3)		3(42.9)	2(28.6)	7	
	자영업	14(43.8)	2(6.3)		4(12.5)	8(25)	4(12.5)	32	
	전업주부	13(31.7)	5(12.2)	4(9.8)		16(39)	3(7.3)	41	
	학생	8(20.5)	3(7.7)	8(20.5)	4(10.3)	13(33.3)	3(7.7)	39	
기타	8(32)	1(4)	5(20)	2(8)	5(20)	4(16)	25		
거주지	산북	101(42.4)	15(6.3)	29(12.2)	17(7.1)	52(21.8)	24 (10.1)	238	14.278**
	산남	15(20)	10(13.3)	12(16)	6(8)	20(26.7)	12(16)	75	

<표 3-5-3> 계속

인지도	있다	99(43.8)	15(6.6)	27(11.9)	15(6.6)	42(18.6)	28(12.4)	226	20.979***
	없다	17(19.5)	10(11.5)	14(16.1)	8(9.2)	30(34.5)	8(9.2)	87	
참여경험	있다	62(53)	5(4.3)	11(9.4)	4(3.4)	20(17.1)	15(12.8)	117	25.016***
	없다	54(27.6)	20(10.2)	30(15.3)	19(9.7)	52(26.5)	21(10.7)	196	
계		116(37.1)	25(8)	41(13.1)	23(7.3)	72(23)	36(11.5)	313	

* p<.1 ** p<.05 *** p<.01

어떤 과정을 더욱 개발하여야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체적으로 전문자격증과정(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양과정(16.3%), 외국어과정(12.1%), 생활체육과정(10.9%)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직업에서는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월평균소득에서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전문자격증과정, 교양과정, 생활체육과정, 컴퓨터과정 순으로 응답을 한 반면, 여성은 전문자격증과정에 이어서 교양과정과 외국어과정이 같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과정과 특별강좌과정을 더욱 개발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들은 외국어과정과 컴퓨터과정 등 학교, 학원에서 배웠던 교육을 저렴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과거 여성들보다 교육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 보다는 사교와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양과정과 생활체육과정을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본다면 농수축산업종사자는 컴퓨터과정을 가장 개발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직업군들은 전문자격증과정을 가장 개발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 학생들은 외국어과정을 개발해야한다는데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영업자와 주부들은 교양과정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월평균소득별로 본다면 99만원이하 소득자는 전문자격증과정과 교양과정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 그 외 소득군은 전문자격증과정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외국어과정과 예술음악과정을 개발해야한다는 응답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예술과정도 평생교육을 통해 배우길 희망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가 있는 주민들은 전문자격증과정, 교양과정, 외국어과정 순으로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인지가 없는 주민들은 전문자격증과정, 생활체육과정, 교양과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5-4> 개발해야할 과정

독립변수		④ 개발해야할 과정									전체 (n=313)	x ²
		전문 자격 증	교양	외국 어	컴퓨 터	생활 체육	예술, 음악	학점 은행	특별 강좌	기타		
성별	남	36	24	11	14	17	3	4	8	1	118	14.478*
	여	77	27	27	12	17	13	5	17		195	
연령	20대	27	9	11	8	7	6	4	3		75	22.893
	30대	34	13	13	8	8	2	4	8		90	
	40대	34	15	12	6	11	5		8	1	92	
	50대 이상	18	14	2	4	8	3	1	6		56	
취 학 종 력	중졸이하	8	7	1		5	2				23	38.064
	고졸	40	18	11	13	11	6	3	12		114	
	전문대졸	33	9	9	5	6	2	4	6	1	75	
	4년제 대졸	31	15	15	6	11	6	1	4		89	
	대학원이상	1	2	2	2	1		1	3		12	
월 평 균 소 득	99만원이하	7	6		4	4		1	3		25	66.217****
	100~199만원	46	14	11	4	4	4	4	7		94	
	200~299만원	23	11	11	16	14	3	3	7	1	89	
	300~399만원	26	14	10	10	9	1	3			72	
	400만원이상	11	6	9		2			5		33	
직 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21	9	10	5	7		1	3	1	57	80.948*
	사무직	26	5	6	1	4	2	4	1		49	
	서비스·판매 직	19	8	7	4	3	3	1	3		48	
	농수축산업 종사자	3	3	1	5	1			2		15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2		1	1	1			2		7	
	자영업	11	7	2	2	5			5		32	
	전업주부	11	10	2	1	6	5		6		41	
	학생	10	6	7	5	4	2	2	3		39	
기타	10	3	2	2	3	4	1			25		
거주 지	산북	84	39	28	21	25	12	7	21	1	238	1.947
	산남	29	12	10	5	9	4	2	4		75	

<표 3-5-4> 계속

인지도	있다	82	37	28	19	18	13	8	20	1	226	9.391
	없다	31	14	10	7	16	3	1	5		87	
참여경험	있다	51	19	15	6	6	7	2	11		117	13.127
	없다	62	32	23	20	28	9	7	14	1	196	
계		113 (36.1)	51 (16.3)	38 (12.1)	26 (8.3)	34 (10.9)	16 (5.1)	9 (2.9)	25 (8)	1 (0.3)	313	

* p<.1 ** p<.05 *** p<.01

희망하는 교육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경험학습법(48.6%)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어서 상호작용법(16.9%), 교수자중심법(13.7%), 토론중심법(12.1%)의 비율도 골고루 나왔고, 원격교육법(8.3%)은 비교적 선호하고 있지 않았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봤을 때 연령변수만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연령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2,30대의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이 교수자중심 학습법을 선호하고 있었고, 3,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토론중심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20대를 제외한 3-50대 이상은 평균 10%이상이 원격교육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 3-5-5> 희망하는 교육방법

독립변수		⑤ 희망하는 교육방법						전체 (n=313)	x ²
		교수자 중심	토론 중심	상호 작용	경험학 습	원격 교육	기타		
성별	남	18(15.3)	15(12.7)	20(16.9)	56(47.5)	9(7.6)		118	1.126
	여	25(12.8)	23(11.8)	33(16.9)	96(49.2)	17(8.7)	1(0.5)	195	
연령	20대	7(9.3)	5(6.7)	15(20)	46(61.3)	1(1.3)	1(1.3)	75	28.673**
	30대	8(8.9)	13(14.4)	16(17.8)	44(48.9)	9(10)		90	
	40대	14(15.2)	16(17.4)	11(12)	41(44.6)	10(10.9)		92	
	50대 이상	14(25)	4(7.1)	11(19.6)	21(37.5)	6(10.7)		56	
취 종 학 력	중졸이하	3(13)	1(4.3)	6(26.1)	11(47.8)	2(8.7)		23	19.841
	고졸	21(18.4)	12(10.5)	17(14.9)	59(51.8)	5(4.4)		114	
	전문대졸	9(12)	12(16)	10(13.3)	37(49.3)	7(9.3)		75	
	4년제 대졸	7(7.9)	13(14.6)	17(19.1)	41(46.1)	10(11.2)	1(1.1)	89	
	대학원이상	3(25)		3(25)	4(33.3)	2(16.7)		12	

<표 3-5-5> 계속

월 평 소 득	99만원이하	1(4)	3(12)	5(20)	16(64)			25	15,360
	100~199만원	14(14.9)	9(9.6)	19(20.2)	45(47.9)	7(7.4)		94	
	200~299만원	11(12.4)	13(14.6)	13(14.6)	43(48.3)	9(10.1)		89	
	300~399만원	10(13.9)	8(11.1)	10(13.9)	37(51.4)	6(8.3)	1(1.4)	72	
	400만원이상	7(21.2)	5(15.2)	6(18.2)	11(33.3)	4(12.1)		33	
직 업	전문·기술 · 행정관리 직	9(15.8)	9(15.8)	11(19.3)	21(36.8)	7(12.3)		57	36,625
	사무직	5(10.2)	6(12.2)	7(14.3)	26(53.1)	4(8.2)	1(2)	49	
	서비스·판 매직	6(12.5)	6(12.5)	9(18.8)	22(45.8)	5(10.4)		48	
	농수축산업 종사자	2(13.3)	2(13.3)	3(20)	7(46.7)	1(6.7)		15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3(42.9)	2(28.6)	2(28.6)			7	
	자영업	7(21.9)	5(15.6)	5(15.6)	14(43.8)	1(3.1)		32	
	전업주부	7(17.1)	3(7.3)	4(9.8)	21(51.2)	6(14.6)		41	
	학생	2(5.1)	2(5.1)	7(17.9)	27(69.2)	1(2.6)		39	
	기타	5(20)	2(8)	5(20)	12(48)	1(4)		25	
거주 지	산북	30(12.6)	30	46(19.3)	111(46.6)	20(8.4)	1(.4)	238	5,552
	산남	13(17.3)	8(10.7)	7(9.3)	41(54.7)	6(8)		75	
인 지 도	있다	30(13.3)	32(14.2)	42(18.6)	100(44.2)	21(9.3)	1(0.4)	226	8,618
	없다	13(14.9)	6(6.9)	11(12.6)	52(59.8)	5(5.7)		87	
참 여 경 험	있다	20(17.1)	17(14.5)	23(19.7)	47(40.2)	9(7.7)	1(0.9)	117	7,699
	없다	23(11.7)	21(10.7)	30(15.3)	105(53.6)	17(8.7)		196	
계		43(13.7)	38(12.1)	53(16.9)	152(48.6)	26(8.3)	1(0.3)	313	

*p<.1 **p<.05 ***p<.01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편의성, 우수한 강사진, 프로그램 내용, 저렴한 수강료, 동료들과의 교류, 편의시설 구비, 교육시설 완비가 모두 중요한 요소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 중 우수한강사진이 중요하다는 응답율이 92%,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육시설완비, 저렴한 수강료, 교통편의성도 각각 81.7%, 78%, 77%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반면 동료들과의 교류(64.2%), 편의시설구비(61.9%)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3-5-6>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욕구

평생교육 욕구		빈도(명)	비율(%)
교통편의성	매우중요	106	33.9
	중요	135	43.1
	보통	68	21.7
	중요하지않음	4	1.3
	전혀중요하지않음		
우수한 강사진	매우중요	175	55.9
	중요	113	36.1
	보통	25	8.0
	중요하지않음		
	전혀중요하지않음		
프로그램 내용	매우중요	174	55.6
	중요	113	36.1
	보통	16	5.1
	중요하지않음		
	전혀중요하지않음		
저렴한 수강료	매우중요	117	37.4
	중요	127	40.6
	보통	67	21.4
	중요하지않음	2	0.6
	전혀중요하지않음		
동료들과의 교류	매우중요	70	22.4
	중요	131	41.8
	보통	87	27.8
	중요하지않음	21	6.7
	전혀중요하지않음	4	1.3
편의시설 구비	매우중요	69	22.0
	중요	125	39.9
	보통	100	31.9
	중요하지않음	18	5.7
	전혀중요하지않음	1	0.3
교육시설 완비	매우중요	120	38.3
	중요	136	43.4
	보통	51	16.3
	중요하지않음	6	1.9
	전혀중요하지않음		
계		313	100

라. 평생교육만족도와 평생교육욕구의 상관관계

평생학습만족도가 높으면 욕구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Pearson 계수값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가까운 거리가 평생교육에 중요하다는 교통편의 욕구와 만족도간에는 역의 상관관계를 많이 보이고 있었고, 저렴한 수강료의 욕구와 만족도간에도 역의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 몇 가지 요인에서는 90%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목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강사진에 대한 욕구와 프로그램내용에 대한 욕구의 상관관계가 각각 90% 신뢰수준에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강사진, 프로그램 내용에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수한강사진에 대한 욕구와 교육시설완비에 대한 욕구의 상관관계가 각각 90% 신뢰수준에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통편의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상관관계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료들과의 교류 욕구의 상관관계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활용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동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3-6> 평생학습만족도와 욕구의 상관관계

만족도 \ 욕구		가까운 거리	우수한 강사진	프로그램 내용	저렴한 수강료	동료들과의 교류	편의시설구비	교육시설완비
		Pearson						
교육 목적	Pearson	.010	.179*	.220**	.031	.053	.001	.112
교수 방법	Pearson	.017	.115	.055	-.052	.100	.071	.114
교수 자질	Pearson	.068	.112	.117	.038	.045	.059	.107
교육 기간	Pearson	.072	.080	-.048	-.015	.035	.091	.019
시설 설비	Pearson	-.056	.164*	.086	.074	.033	.138	.225**
학습 비용	Pearson	-.133	.076	.051	-.014	-.099	.060	-.027

<표 3-6> 계속

교통 편의	Pearson	-.147	.118	.154*	-.037	.094	.020	.026
학습 효과	Pearson	-.047	.105	.082	.021	.044	-.060	.035
사회적 활용도	Pearson	.061	.040	-.023	-.073	.235**	.104	.097

*p<.1 **p<.05 ***p<.01

마.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분석

평생교육시설 확보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자치단체소속기관 세미나실을 활용(34.8%)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교육시설로 전환(33.2%)하자는 응답률이 68%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자치단체차원의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2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 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변수는 $p<.05$ 수준에서, 거주지별로는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저학력자일수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물을 구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고학력자일수록 자치단체 소속기관 세미나실을 활용하자는 응답률이 높았다. 고학력자들은 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저학력자에 비해 많고, 교육성격에 따라 자치단체 소속기관 세미나실 활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소속기관 세미나실을 활용하자는 응답이 높았고, 저학력자는 정부기관의 세미나실 활용여부도 확실히 모르고 세미나 참여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간편하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물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졸자와 4년제 대졸자는 주민자치센터를 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대학원이상 학력자는 기타 학력에 비해 교회, 복지관 등 사회단체를 활용하자는 응답률이 16.7%로 높았다.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산북지역은 자치단체소속기관 세미나실 활용(36.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산남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교육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산남지역은 자치단체 소속 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이 산북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고, 교통편의성도 낮기 때문에 거주지에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표 3-7-1> 평생교육시설 확보방안

독립변수		① 평생교육시설 확보방안					전체 (n=313)	x ²
		자치단체 차원의건 물구입	초중학 교방과 후교실 활용	자치단체 소속기관 세미나실 활용	주민자치 센터시설 육시설로 전환	교회,복 지관,동 사회단체 활용		
성별	남	31(26.3)	9(7.6)	34(28.8)	39(33.1)	5(4.2)	118	6.387
	여	34(17.4)	9(4.6)	75(38.5)	65(33.3)	12(6.2)	195	
연령	20대	16(21.3)	4(5.3)	23(30.7)	29(38.7)	3(4)	75	14.716
	30대	14(15.6)	10(11.1)	36(40)	26(28.9)	4(4.4)	90	
	40대	19(20.7)	2(2.2)	33(35.9)	33(35.9)	5(5.4)	92	
	50대 이상	16(28.6)	2(3.6)	17(30.4)	16(28.6)	5(8.9)	56	
취종력	중졸이하	10(43.5)	1(4.3)	7(30.4)	3(13)	2(8.7)	23	36.721**
	고졸	30(26.3)	5(4.4)	30(26.3)	45(39.5)	4(3.5)	114	
	전문대졸	10(13.3)	7(9.3)	32(42.7)	19(25.3)	7(9.3)	75	
	4년제 대졸	14(15.7)	4(4.5)	33(37.1)	36(40.4)	2(2.2)	89	
	대학원이상	1(8.3)	1(8.3)	7(58.3)	1(8.3)	2(16.7)	12	
월평균 소득	99만원이하	6(24)	2(8)	10(40)	6(24)	1(4)	25	16.040
	100~199만원	21(22.3)	3(3.2)	34(36.2)	32(34)	4(4.3)	94	
	200~299만원	15(16.9)	6(6.7)	24(27)	37(41.6)	7(7.9)	89	
	300~399만원	19(26.4)	6(8.3)	25(34.7)	20(27.8)	2(2.8)	72	
	400만원이상	4(12.1)	1(3)	16(48.5)	9(27.3)	3(9.1)	33	
직업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15(26.3)	2(3.5)	21(36.8)	13(22.8)	6(10.5)	57	37.477
	사무직	10(20.4)	5(10.2)	18(36.7)	14(28.6)	2(4.1)	49	
	서비스·판매 직	4(8.3)	2(4.2)	18(37.5)	20(41.7)	4(8.3)	48	
	농수축산업 종사자	5(33.3)		4(26.7)	6(40)		15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4(57.1)		1(14.3)	1(14.3)	1(14.3)	7	
	자영업	6(18.8)	4(12.5)	10(31.3)	11(34.4)	1(3.1)	32	
	전업주부	6(14.6)		17(41.5)	17(41.5)	1(2.4)	41	
	학생	8(20.5)	2(5.1)	12(30.8)	16(41)	1(2.6)	39	
	기타	7(28)	3(12)	8(32)	6(24)	1(4)	25	
거주 지	산북	53(22.3)	12(5)	86(36.1)	71(29.8)	16(6.7)	238	8.932*
	산남	12(16)	6(8)	23(30.7)	33(44)	1(1.3)	75	
	계	65(20.8)	18(5.8)	109(34.8)	104(33.2)	17(5.4)	313	

* p<.1 ** p<.05 *** p<.01

평생학습사회조성의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 평생교육의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을 이 250명(82.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부족 239명(76.3%), 주민들의 낮은 인식 233명(74.4%)과 자치단체장의 관심·의지부족 231명(73.7%),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부족 226명(72.2%)을 꼽고 있었다. 반면에 실무담당자의 전문성부족 및 업무

과중 214명(68.4%)이 평생학습사회조성의 장애요소라고 응답한 주민들은 비교적 적었다. 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예산 중 지역평생교육예산에 일정 부분 할당하고, 평생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요성을 알리며, 교육기관 중심으로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주민들은 지역사회활동에 관심을 갖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배양 할 때 평생학습사회 조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표 3-7-2> 평생학습사회 조성의 장애요소

구 분	빈도(명)	비율(%)	
자치단체장관심 및 의지 부족	매우그렇다	90	28.7
	그렇다	141	45.0
	보통	71	22.7
	그렇지않다	11	3.5
	전혀그렇지않다		
실무담당자전문 성부족 및 업무과중	매우그렇다	68	21.8
	그렇다	146	46.6
	보통	74	23.6
	그렇지않다	22	7.0
	전혀그렇지않다	3	0.9
평생교육 예산부족	매우그렇다	111	35.5
	그렇다	148	47.3
	보통	45	14.4
	그렇지않다	9	2.9
	전혀그렇지않다		
평생교육시설간 협력부족	매우그렇다	78	24.9
	그렇다	161	51.4
	보통	66	21.1
	그렇지않다	8	2.5
	전혀그렇지않다		
평생학습 홍보부족	매우그렇다	88	28.1
	그렇다	138	44.1
	보통	63	20.1
	그렇지않다	23	7.3
	전혀그렇지않다	1	0.3
주민들의 낮은인식	매우그렇다	95	30.3
	그렇다	138	44.1
	보통	63	20.1
	그렇지않다	15	4.8
	전혀그렇지않다	2	0.6
계	313	10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역할을 질문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로는 재정지원 266명(29.6%)을 가장 큰 역할로 꼽았고, 이어서 정책·제도적 개선이 130명(14.5%)과 광고 및 홍보 102명(11.4%), 무료강좌증설 69명(7.7%), 사회분위기 조성 64명(7.1%)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의 역할로는 광고홍보가 140명(15.9%)와 무료강좌증설 121명(13.7%)을 가장 큰 역할로 꼽고 있었고, 이어서 취업의 중간매개 116명(13.1%), 네트워크 강화 108명(12.2%), 사회분위기조성 102명(11.5%)가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무료강좌증설과 사회분위기조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공통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표 3-7-3>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의 역할(중복체크)

구 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 광고 및 홍보	102	11.4	140	15.9
2) 재정지원	266	29.6	24	2.7
3) 수강료인하	60	6.7	69	7.8
4) 정책, 제도적 개선	130	14.5	20	2.3
5) 무료강좌 증설	69	7.7	121	13.7
6) 분원설치	29	3.2	57	6.4
7) 철저한 지도감독	50	5.6	48	5.4
8) 복지혜택 부여	27	3.0	78	8.8
9) 사회분위기 조성	64	7.1	102	11.5
10) 취업의 중간매개	39	4.3	116	13.1
11) 네트워크강화	61	6.8	108	12.2
계	897	100	883	10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식을 향상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29.1%, 27.8%로 나타난 반면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9.6%)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각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는 $p < .1$ 수준에서, 직업에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시민의식을 향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전체 응

답(27.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시민의식을 향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7.9%로 낮게 나타난 반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8.5%, 3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남/여의 성향의 다름과 함께 남성은 직장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교양함양정도에 두고 있고, 여성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지식 함양, 취업 등 더욱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수도 있겠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시민의식향상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3,4,50대는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사무직,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시민의식을 향상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고, 자영업과, 전업주부, 농수축산업종사자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산북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가 똑같이 31.1%, 이어서 시민의식 향상(26.5%)순으로 나타난 반면, 산남지역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의 활용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민의식향상(32%),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2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4>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중복체크)

독립변수		④ 평생교육활성화방안(지역주민의역할)				전체 (n=313)	x ²
		시민의식 향상	적극적 의견개선	지역사 회활동 에 참여	교육통해 얻은지식 적극활용		
성별	남	52(44.1)	10(8.5)	26(22)	30(25.4)	118	25.240***
	여	35(17.9)	20(10.3)	65(33.3)	75(38.5)	195	
연령	20대	28(37.3)	8(10.7)	16(21.3)	23(30.7)	75	10.306
	30대	22(24.4)	11(12.2)	26(28.9)	31(34.4)	90	
	40대	25(27.2)	4(4.3)	30(32.6)	33(35.9)	92	
	50대 이상	12(21.4)	7(12.5)	19(33.9)	18(32.1)	56	
최종학력	중졸이하	3(13)	5(21.7)	11(47.8)	4(17.4)	23	13.335
	고졸	36(31.6)	10(8.8)	27(23.7)	41(36)	114	
	전문대졸	20(26.7)	8(10.7)	22(29.3)	25(33.3)	75	
	4년제 대졸	25(28.1)	6(6.7)	28(31.5)	30(33.7)	89	
	대학원이상	3(25)	1(8.3)	3(25)	5(41.7)	12	

<표 3-7-4> 계속

월평균소득	99만원이하	10(40)	4(16)	7(28)	4(16)	25	7.925
	100~199만원	26(27.7)	9(9.6)	23(24.5)	36(38.3)	94	
	200~299만원	23(25.8)	8(9)	29(32.6)	29(32.6)	89	
	300~399만원	18(25)	6(8.3)	21(29.2)	27(37.5)	72	
	400만원이상	10(30.3)	3(9.1)	11(33.3)	9(27.3)	33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7(29.8)	4(7)	20(35.1)	16(28.1)	57	36.667**
	사무직	15(30.6)	4(8.2)	14(28.6)	16(32.7)	49	
	서비스·판매직	11(22.9)	5(10.4)	16(33.3)	16(33.3)	48	
	농수축산업종사자	4(26.7)	2(13.3)	3(20)	6(40)	15	
	기능·기계단순노무자	1(14.3)	4(57.1)	2(28.6)		7	
	자영업	8(25)		11(34.4)	13(40.6)	32	
	전업주부	8(19.5)	5(12.2)	11(26.8)	17(41.5)	41	
	학생	16(41)	5(12.8)	9(23.1)	9(23.1)	39	
	기타	7(28)	1(4)	5(20)	12(48)	25	
거주지	산북	63(26.5)	27(11.3)	74(31.1)	74(31.1)	238	7.012*
	산남	24(32)	3(4)	17(22.7)	31(41.3)	75	
계		87(27.8)	30(9.6)	91(29.1)	105(33.5)	313	

*p<.1 **p<.05 ***p<.01

3. 가설의 검정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균비교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거주지, 평생교육인지도, 평생교육참여여부는 독립2표본검정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직업은 분산분석(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필요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매우필요)에 가까울수록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인구통계적특성별 변수 중 연령변수만이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설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것이라고 하였으나 40대의 평생교육 욕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대, 20대, 50대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가설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특성별 변수에서는 직업변수를 제외하고 학력과, 월평균소득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설과 같이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자일수록 평생교육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인지도 변수에서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고, 평생교육 인지도가 있는 주민이 인지도가 없는 주민보다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같았다.

평생교육참여 변수에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평생교육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같았다.

<표 3-8-1> 독립변수별 평생교육 욕구검정

독립변수			평생교육 필요욕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인구통계적 특성	1) 성별	남	118	1.81	.89	1.327
		여	195	1.68	.74	
	2) 연령	20대	75	1.73	.74	2.194*
		30대	90	1.72	.84	
		40대	92	1.62	.77	
		50대 이상	56	1.96	.85	
3) 거주지	산북	238	1.72	.82	.589	
	산남	75	1.80	.73		
사회경제적 특성	1) 최종학력	중졸이하	23	2.13	.97	2.840**
		고졸	114	1.78	.77	
		전문대졸	75	1.72	.80	
		4년제 대졸	89	1.66	.78	
	2) 월평균소득	대학원이상	12	1.25	.62	2.748**
		99만원이하	25	2.08	1.04	
		100~199만원	94	1.68	.78	
		200~299만원	89	1.85	.78	
		300~399만원	72	1.67	.77	
	3) 직업	400만원 이상	33	1.48	.71	.901
		전문·기술·	57	1.75	.79	
		행정관리직				
		사무직	49	1.57	.79	
		서비스·판매직	48	1.67	.75	
		농수축산업	15	1.73	.80	
		종사자				
기능·기계		7	2.29	1.11		
단순노무자						
자영업	32	1.69	.82			
전업주부	41	1.78	.73			
학생	39	1.82	.85			
기타	25	1.88	.88			

<표 3-8-1> 계속

평생교육인지도	있다	226	1.65	.81	-3.160***
	없다	87	1.97	.74	
평생교육참여경험	있다	117	1.47	.66	-4.722***
	없다	196	1.90	.84	
계		313			

* p<.1 ** p<.05 *** p<.01

가설 1 제주도민의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세부가설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가설 2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세부가설 중 교육수준과 소득수준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채택되었고, 직업별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어, 가설 2는 부분채택되었다.

가설 3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인지도 여부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채택되었다.

가설 4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채택되었다.



<표 3-8-2> 가설검정

가설	세부가설	채택 여부
1. 제주도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성별) 여성일수록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 것이다. (X)	전체 기각(X)
	1-2(연령) 연령이 많을수록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 것이다. (X)	
	1-3(거주지) 산북에 거주하는 주민이 평생교육 욕구가 높을 것이다. (X)	
2. 제주도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교육수준)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O)	부분채택(Δ)
	2-2(소득수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O)	
	2-3(직업) 화이트칼라일수록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 (X)	
3.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인지도 여부에 따라 평생교육 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평생교육 인지도) 평생교육 인지도가 있는 주민이 인지도가 없는 주민보다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O)	채택(O)
4.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평생교육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평생교육욕구가 높을 것이다.(O)	채택(O)

제 4 장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요소를 극복해야 하는데, 설문지분석을 통해 알아본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평생교육 예산부족(82.8%)이었고, 이어서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부족(76.3%), 주민들의 낮은 인식(74.4%), 자치단체장의 관심, 의지부족(73.7%),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부족(72.2%), 실무담당자의 전문성부족 및 업무과중(68.4%)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제안에 앞서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주민의 역할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설문지분석을 통해 알아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지원(266명-29.6%)을 꼽고 있었고, 이어서 정책, 제도적 개선(130명-14.5%), 광고 및 홍보(102명-11.4%)로 나타났다.

첫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장애요소에서도 평생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평생학습 예산부족을 꼽고 있었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22조307억원 대비 99억원으로 0.04%(‘04년 일반회계 기준)에 지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바야흐로 전세계적으로 평생교육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예산을 최소한 내년 교육예산의 2%정도 할당하여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예산확보 후 평생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평생교육담당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여건이 구축된 국내 선진지역 또는 선진외국의 평생교육 사례를 보고 배우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하며, 자체 워크샵을 수행하여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무적인 부분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교육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재원 확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가케가와시나 대부분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도 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과 관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의 중요성은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현장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 지방조례가 제정되고, 1인당 평생교육예산이 많은 지역일수록 네트워크 기관수가 증가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기관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적 지원의 한 사례로 영국은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평생학습 협력, 운영을 유도하고, 전 지역에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자료를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독특한 현안을 상호 이해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도 이러한 선진제도를 받아들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광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다른 지역의 실태 등 주민들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쉽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책자 발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 공모 등 적극적인 대도민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① 자치단체 소속기관(공무원교육원, 도서관 등) 세미나실을 활용 ②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실시 ③ 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교 등 건물을 구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제주군 같이 평생교육시설이 근처에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교 등 건물을 구입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제2절 교육기관의 역할

설문지분석을 통해 알아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광고 및 홍보(140명-15.9%)를 꼽고 있었고, 2위 무료강좌증설(121명-13.7%), 3위 취업의 중간매개(116명-13.1%), 4위 네트워크 강화(108명-12.2%), 5위 사회분위기 조성(102명-11.5%)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무료강좌를 증설하여 비용의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야유회, 체육대회, 졸업식 등 평생학습 참여로 인한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취업으로 갈 수 있는 취업의 중간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교육이 단순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lifelong learning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사회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치단체가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학습과 토론,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습동아리’를 육성 지원해야 한다. 이는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한 시민의 전문자원활동가로의 성장을 도울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넷째,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국가의 일관된 평생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체계가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지역사회 내에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 여러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나름의 교육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인줄 모른 채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기관들이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미 자리매김해 있는 관계 기관들과 더불어 지역 내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외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던 점이 국가차원의 학습망 구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평생교육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학교 간의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상담, 기관 상호간 교육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평생교육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생교육 사회분위기 조성이다.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 시키는 일이다. 평생교육이 곧 ‘취미교양’이자 ‘여가선용’이란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학습목적에 맞는 학습경로를 찾아주는 평생학습 전문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학습 욕구에 맞춰 적절한 성장점을 찾아주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 전문상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평생학습 전문상담실은 개인, 기관 단위의 전문상담, 기업체를 위한 전문상담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평생학습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지역주민의 역할

설문지분석을 통해 알아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105명-33.5%), 2위 봉

사활동 등 지역사회활동 참여(91명-29.1%), 3위 시민의식 향상(87명-27.8%), 4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30명-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평생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학습과 토론의 장(학습동아리)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업을 한다든지, 교육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평생교육 참여자는 학습자로서 일반주민보다 지역사회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시민의식을 향상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장애요소로도 지적되었지만 어쩌면 지역주민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함양, 여가활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등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1919년부터 시민대학이 본격적으로 보편화되었는데 시민대학이 국가주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독지가들에 의해 전국 시민대학의 약 15%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더욱 전파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의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주민(피교육자)이 주체가 되는 적극성이 강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방식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자신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교수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이 진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사회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제언

오늘날의 사회는 지금까지의 고도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화 사회이며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지식정보사회, 학습사회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슬기롭게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개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제안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환, 2000년 평생교육법을 공포하고,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2005년 현재 33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도 제주시가 2002년에, 서귀포시가 200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김남선 2004, 김신일 2004, 이희수 2002, 양병찬 2003, 양홍권 2004, 변종임 2005)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경우 조성 초기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제주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평생학습 선정 당시의 열의보다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여겨지고, 군지역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간헐적으로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으나, 평생교육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전체의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유형 제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제주도의 평생교육이 도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통계적 변수로 성별, 나이, 거주지를 설정하였고, 사회경제적 변수로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직업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로 평생교육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인지도여부와 평생교육 참여여부를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20대이상의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자료를 얻었다.

우선 개인별 특성별로 평생교육 인지도를 χ^2 검증한 결과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최종학력변수에서는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평생교육 인지도가

높았고, 고학력으로 갈수록 평생교육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초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41.2%, 신문 17.7%, 포스터 15%의, 스스로 찾아서 10.6%, tv광고 6.6%, 인터넷 4.9%, 현수막 4% 순서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생교육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71개의 표본과 함께 일반시민 242명중 19%정도인 46명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2004년 우리나라 전체의 평생교육 참여율 23.6%(최돈민 외)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실태분석에서 이용년수는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대부분 1년미만으로 대학부설기관, 정부보조기관, 사설문화센터 등의 장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문자격증과정과 교양과정, 생활체육과정에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시간별로는 성별, 거주지에 따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남자는 주말저녁을 주로 이용한 반면 여자는 평일저녁과 평일오전을 선호하고 있었고, 산북지역은 주말저녁, 평일저녁, 평일오전순으로 선호하는 반면, 산남지역은 평일저녁, 평일오전, 비정기적 특강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미참여자의 경우는 전체의 46.9%가 잘몰라서, 33.2%는 시간이 없어서, 16.3%는 필요성을 못느껴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평생학습 욕구분석 결과 중졸이하, 99만원 월평균소득 이하, 기능 기계 단순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전문자격증과정, 외국어과정, 교양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경험학습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참여하고 싶은 장소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많이 나왔는데, 여성은 대학부설기관에 이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고, 남성은 대학부설기관 이어 정부보조기관(도서관, 공무원교육원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저연령대일수록 정부보조기관을 선호하고 있었고, 20대와 50대 이상은 시민단체부설기관도 3,40대에 선호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산북지역은 42.4%가 대학부설기관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기관,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부설기관, 사설문화센터 순으로 응답하였고, 산남지역은 지역사회복지관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학부설기관, 주민자치센터, 정부보조기관, 사설문화센터, 시민단체부설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북지역에 대학이 밀집해 있어 산남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비교적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개발해야 할 과정으로는 성별, 직업별로는 90% 신뢰수준에서 월평균소득별로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전문자격증과정을 매우 선호하고 있었지만 여성의 선호도가 더욱 높았고, 여성은 전문자격증과정 다음으로 교양과정과 외국어과정, 특별강좌과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교양과정과 생활체육과정, 컴퓨터과

정을 선호하고 있었다. 월평균소득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예술음악과정과 특별강좌 과정 선호도가 높았고, 저소득층일수록 전문자격증과정과 컴퓨터과정 등 실용적인 과정을 선호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요약을 전제로 제주도 실정에 알맞는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인지도가 낮은 20대와 50대 이상, 저학력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와 그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간단하면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거나 지역방송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해 대도민 홍보를 하여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알리면서 평생교육 홍보에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고등교육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채널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접하고 자기 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학교 다닐 때나 받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이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민 평생학습 최초 인지경로에서 tv광고, 현수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 또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평생교육 인지도도 높이고,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별, 연령별, 성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기관에서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을 자제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북지역은 대학부설기관에서 전문자격증과정과 교양과정을 개설하길 원하고, 경험학습법과 상호작용 교수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산남지역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전문자격증과정과 외국어과정의 개설을 희망하고 경험학습법과 더불어 교수자중심 교수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산남지역에는 대학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이 높고, 산북지역처럼 외국어학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 개설시, 교양과정보다는 생활외국어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선호시간대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달랐던 점을 고려하여 주말저녁에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과정, 컴퓨터과정 프로그램을, 평일저녁과 평일오전에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외국어과정, 특별강좌과정을 배치한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제주도는 아직 자치단체 내에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부재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사 1인을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하지만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신분과 처우가 안정적이 못하며 업무량 과다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는 15명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시 평생교육센터뿐만 아니라 각 마을단위 학습권역의 주민자치학습센터에도 배치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도 평생교육사의 양성, 채용 인원수를 늘리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평생학습도시 선정지역에 비해 제주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 평생교육시설 간의 협력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제주의 평생교육기관들만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자체연수, 워크숍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004년 현재 19개 평생학습도시의 연수 실시 횟수를 보면, 2001년 4회, 2002년 6회, 2003년 26회, 2004년 130회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주축이 되어 매년 1회의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연계연수를 실시하여 다른 지역들과 평생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모아 집적하여 도민과 관련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제주도의 평생교육은 성인의 학교 후 교육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평생교육이란 말 그대로 성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세대인 아동, 청소년들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맞는 예절교육, 성교육, 건전한 이성관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에서 담당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대학입학만을 바라본 교육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 삶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바로 교육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지역의 설문회수율이 낮아 4개 시군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산남/산북으로 리코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주민등록인구통계(2005)의 지역별 비율과 달리 산북지역이 실제 비율인

71.2%보다 4.3%가 많은 75.5%의 비율로 조사되었고, 산남지역은 실제비율(28.8%)보다 4.3% 적은 24.5%의 비율로 조사되어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측정상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 설문지에 의한 조사분석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설문지형식의 인위성과 일률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설문응답자의 의견이 당시의 상황, 기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에 제한이 있고, 독립변수의 설정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연구에 이용함으로써 기타 요인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조사만 실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실무자, 재정,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안되어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제언이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평생교육에 연관된 모든 대상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현황과 지원방향,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지역주민의 교육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수일(1997), 「평생교육론」, 양서원.
김종서 외(2000),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이규호 외(2000), 「평생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사.
권이중 외(2001), 「현대사회와 평생교육」, 교육과학사.
이영자, 진규철(2000), 「교육사회학」, 학문사.
권대봉(1998), 「평생학습사회교육」, 지학사.
김용현(1999), 「사회교육과 열린 평생학습」, 독자와 함께.
김신일·한승희 편(2001), 「평생교육학」, 교육과학사.
조용하(1996), 「사회교육과 여가」, 교육과학사.
장진호(1983), 「평생교육과 대학」, 배영출판사.
박용현·최정숙(1989), 「교육사회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 논문

- 이희수 외(2000)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평생교육백서 200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진단.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활성화 종합연구 계획」.
한국교육개발원 국회교육위원회(2004), 「학습국가로의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이희수 외(2003)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최운실 외(1999), 「평생교육의 법적제도 및 행정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권두승, 이경아(1999),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성인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교육부.
변종임 외(2003), 서울지역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2002), “평생학습시대 지역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원리와 과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학습시대 지역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논리와 과제 제 20차 평생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최돈민·이해주·윤여각(1998),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열린교육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 외(2002), “지역단위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 외(1999), 평생교육 요구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 외(2002), OECD 교육정책분석: 평생학습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정책 위원회.

최돈민 외(200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송영필 외(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신원득 외(2000), 평생교육활성화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양병찬(2004), “평생교육 통한 지역 활성화전략-일본의 평생학습 도시사업을 중심으로-”, 사람입국신경제력위원 세미나 자료집.

이희수 외(2004), “OECD 학습도시 정책 동향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14권 2호, 한국비교교육학회.

김창환 외(2003),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DB 구축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민호(2004) “제주평생학습도시의 육성방안”, 2004 제주도보 p.108~116.

김성길(2004) UNESCO와 OECD의 평생교육전략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평생여가교육의 가능성, 연세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 55~71.

김신일(2000).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방향과 과제-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김신일(2003), “평생학습사회와 새로운 교육문화의 가능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생학습사회 정책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돈민 외(2004), 한국의 평생교육수준진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자료집(2003), 한국교육개발원.

_____,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2005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양병찬(1998),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 사회교육학연구 Vol.4, No.2.

고인아(2004),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연구-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연구 Vol. 10 No. 4

김민호 외(1999)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과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 교육부.

제주시평생학습센터, 제주시 평생교육기관, 단체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방안-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2002), 제주지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홍숙희(2005),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활성화(토론문)” p. 161~173.

이기환(2003), 평생교육학습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은아(2003),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구리시·남양주시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근식(2003), 도서관 및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기능 활성화방안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태화(2002), 평생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용화(1999), 평생교육의 이념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선영(2003), 평생교육기관별 참여학습자의 프로그램 선택기준 및 지속촉진요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현숙(2002), 학부모·지역주민들의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실태 및 요구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준(2002),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 -제주지역 대학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1) 논문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OECD(2001), Educational policy analysis 2001, Paris: OECD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UNESCO(2002), EFA Monitoring Report

OECD(1996),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Author

Yarnit, M(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UNESCO(1977), The General Conference Adopts a Recommendation on Adult Education.

3. 기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홈페이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제주시평생교육센터홈페이지

기타 신문자료(제주일보,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및 유인물

부록-설문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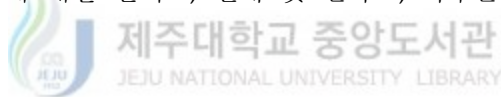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설문지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제주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도출해내고자 제주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 실태 및 만족도,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제주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만 활용되어짐을 사전에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0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 남진열
연구자 : 오윤정 (010-4690-5695)

※ 설문응답시 유의사항

먼저 아래의 박스 안 사전설명을 인지한 후,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응답란“ ___”에 **V표**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설문응답에 필요한 사전설명 >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이후 국가 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예산은 교육예산 22조 307억원 대비 99억원으로 0.04%('04년 일반회계 기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 제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2003년에 서귀포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현재 제주도 전체의 평생학습 추진상황은 평생학습도시선정,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외부적인 틀을 갖춘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시민단체, 각 대학평생교육원 등의 학교부설, 야간학교 등 학교형태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 92개소 정도의 평생교육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I. 다음은 귀하의 평생교육기관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___ ① 알고 있다 **☞ 1-1 문항으로 가세요.**

___ ② 모르고 있다 **☞ 2번 문항으로 가세요.**

1-1. 귀하께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어떤 통로를 통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 | | |
|---------------|------------------|
| ___ ① TV광고 | ___ ② 신문광고 |
| ___ ③ 인터넷광고 | ___ ④ 포스터 및 홍보물 |
| ___ ⑤ 현수막 | ___ ⑥ 주변의 지인을 통해 |
| ___ ⑦ 스스로 찾아서 | |

2. 귀하께서는 평생교육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7. 귀하께서 평생교육과정에 주로 참여하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_____ ① 평일 -오전 _____ ② 평일 -저녁 _____ ③ 주말 -오전
 _____ ④ 주말 - 저녁 _____ ⑤ 비정기적(특강 등 특별행사에만 참여)

8. 귀하가 참여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귀하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_____ ① 매우 도움이 됨 _____ ② 도움이 됨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거의 도움이 안됨 _____ ⑤ 전혀 도움이 안됨

9. 귀하께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시거나 이전에 참여하신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1) 교육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2) 교수방법의 적절성					
3) 교수자의 자질					
4) 교육시간 및 기간의 적절성					
5) 시설설비 등의 적절성					
6) 학습비용의 적절성					
7) 교육장의 위치 및 교통의 편리성					
8) 학습효과의 충분성					
9) 교육참여 결과의 사회적 인정 및 활용성					

Ⅲ. 다음은 귀하의 평생교육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평생교육단체(대학부설,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필요함 _____ ② 다소 필요함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별로 필요치 않음 _____ ⑤ 매우 불필요함

11. 귀하께서 아래의 보기 중 가장 교육받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1, 2위를 선택**

1순위(), 2순위()

- ① 교양 교육 프로그램 ② 취미, 여가 교육 프로그램

- ③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 ④ 건강,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 ⑤ 직업, 기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
- ⑥ 학력인정 교육 프로그램
- ⑦ 시민성 및 사회의식 함양 프로그램

12. 귀하께서는 아래의 보기 중 평생교육장소로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__ ① 대학부설 평생교육관
_____ ③ 정부보조기관(도서관, 박물관)
_____ ⑤ 지역사회복지관 | _____ ② 사설 문화센터
_____ ④ 시민단체 부설기관
_____ ⑥ 주민자치센터 |
|---|--|

13. 귀하께서는 현재 제주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래의 평생교육과정 중 어떤 강좌를 수강하시길 원하십니까? **3순위까지 기입하세요.**



보기: 교양과정 내의 생활한문교실인 경우 ⇒ 2-①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과 정	프 로 그 램 명
1. 전문자격증과정	①부동산 재테크 ②법원경매컨설팅 ③아동미술지도사 ④미술심리치료사 ⑤동화연구지도자과정 ⑥아동영어교육지도사 ⑦신문활용교육지도자 ⑧독서(논술)지도사 ⑨상담전문가양성과정 ⑩풍수지리사 양성과정 ⑪화술지도자과정 ⑫풍선아트전문가 ⑬종이접기지도사 ⑭SPA 아카데미 ⑮아로마테라피 ⑯발(관리) 미용 ⑰케어복지양성과정 ⑱경근마사지 ⑲태국 와포마사지 ⑳도자기공예 ㉑테라코타·도자조형
2. 교양과정	①생활한문교실 ②한문서예교실 ③수필창작교실 ④사군자와 문인화 ⑤서양화기초 ⑥다도(茶道) ⑦한지공예교실 ⑧천연염색 ⑨전통다종이공예 ⑩고려수지침 ⑪서각 ⑫사진이론 및 촬영교실 ⑬면접 이미지 메이킹
3. 외국어과정	①생활중국어교실 ②생활일본어교실 ③기초영어 및 원어민생활영어 ④기초러시아어
4. 컴퓨터교육과정	①홈페이지제작 ②디지털카메라 촬영테크닉
5. 생활체육과정	①댄스스포츠교실 ②웰빙요가 ③웰빙승마교실 ④웰빙댄스 ⑤스킨스쿠버 ⑥골프교실 ⑦인라인교실 ⑧배드민턴
6. 예술, 음악과정	①피아노지도법 ②쥬즈피아노 ③플루트교실 ④클라리넷 ⑤오카리나 ⑥바이올린 ⑦첼로 ⑧성악교실 ⑨대중음악/가요교실 ⑩춤 아카데미(한국무용) ⑪땃생&수채화 ⑫금속·유리공예
7. 학점은행제과정	①포트폴리오작업 ②드로잉 ③일본어회화
8. 특별강좌과정	①국외여행인솔자(T/C)과정 ②유학지도과정 ③119구조대 교육과정 ④여성지도자과정 ⑤노인교육전문과정 ⑥실업자직업훈련

14. 13번 문항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에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_____)

15. 귀하께서는 평생교육관이 어떤 과정의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전문자격증과정 _____ ② 교양과정 _____ ③ 외국어교육과정
 _____ ④ 컴퓨터교육과정 _____ ⑤ 생활체육과정
 _____ ⑥ 예술, 음악과정 _____ ⑦ 학점은행제과정
 _____ ⑧ 특별강좌 _____ ⑨ 기타(_____)

16. 귀하께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 ___ ① 교수자 중심 교육방법(강의, 질의 등)
 ___ ② 토론중심법(세미나, 워크숍 등)
 ___ ③ 상호작용법(역할연기, 집단훈련, 팀티칭)
 ___ ④ 경험학습법(연습, 시범, 현장학습)
 ___ ⑤ 원격교육법(TV, 컴퓨터 등 동영상을 활용한 학습법)
 ___ ⑥ 기타()

17. 귀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 중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함	중요 함	보통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하 지 않음
1) 집에서 가까운 거리					
2) 우수한 강사진과 전문성 있는 운영진					
3)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내용					
4) 저렴한 수강료					
5)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6) 도서관,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구비					
7) 교재, 강의도구(특히, 악기, 미술도구), 동영상시설 등 교육시설 완비					

IV. 다음은 귀하의 평생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___ ① 폐교 등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입하여 평생교육학습관을 지역별로 건설한다.
 ___ ② 초·중학교를 방과 후의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한다.
 ___ ③ 공무원교육원, 박물관, 도서관 등 자치단체소속기관의 세미나실 등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한다.
 ___ ④ 주민자치센터를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___ ⑤ 교회, 복지기관 등 사회단체를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한다.

1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치단체장,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부족					
2)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과중					
3) 평생교육사업 예산의 부족					
4) 평생교육시설간의 연계 협력부족					
5)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홍보 및 안내부족					
6)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인식					

20. 아래의 보기 중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각각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____, ____, ____ *교육기관의 역할: ____, ____, ____)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고 및 홍보를 늘려야 한다.(광고, 홍보) ②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재정지원) ③ 수강료를 인하해야 한다.(수강료인하) ④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정책·제도적 개선) ⑤ 무료수강 강좌를 늘려야 한다.(무료강좌 증설) ⑥ 분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분원 설치) ⑦ 평생교육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철저한 지도·감독) ⑧ 수강생에게 복지혜택(졸업식, 단합대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복지혜택 부여) ⑨ 전반적인 평생교육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사회분위기 조성) ⑩ 취업의 중간매개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취업의 중간매개) ⑪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민간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네트워크 강화) |
|---|

21.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평생교육을 지역사회발전으로 여기는 등 시민의식의 향상
- ____ ② 프로그램 건의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 ____ ③ 교육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 ____ ④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 기술 등의 적극적인 활용
- ____ ⑤ 기타()

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 ___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___ ① 20대 ___ ② 30대 ___ ③ 40대
___ ④ 50대 ___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___ ① 중졸이하 ___ ② 고졸 ___ ③ 전문대졸
___ ④ 4년제 대졸 ___ ⑤ 대학원 이상

4. 귀택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 전체 평균 월 소득은 아래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___ ① 99만원 이하 ___ ② 100만원 ~ 199만원
___ ③ 200만원 ~ 299만원 ___ ④ 300만원 ~ 399만원
___ ⑤ 4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아래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___ ① 전문·기술·행정관리직 ___ ② 사무직
___ ③ 서비스·판매직 ___ ④ 농수축산업 종사자
___ ⑤ 기능·기계 단순노무자 ___ ⑥ 자영업
___ ⑦ 전업주부 ___ ⑧ 학생
___ ⑨ 기타()

6.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___ ① 제주시 ___ ② 서귀포시 ___ ③ 북제주군 ___ ④ 남제주군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revitalization plans for lifelong education
in case of jeju region

Oh, Yun-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Nam chin-yoel, PH. D.

December, 2005

As our country's course of policy sets its target as the realization of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it is very urgent to train competent people for the region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The global trend for training competent people in the modern society is lifelong training and the lifelong training of the region becomes very important for the regional 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parts. First, it is to present a lifelong training center and the programs that are suitable for the region's characteristics by recognizing the realities and desires of lifelong training for the people of Jeju Island.

Second, it is to search for the roles by each subject for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present a development plan.

With these purposes, this study was composed by dividing it into a total of 5 chapters. Chapter 1 states the background, extent and method of this research. Chapter 2 examines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spection of previous researches and each country's promotion status of lifelong training. Chapter 3 analyzes the realities and desires of lifelong training in Jeju Island using a questionnaire, Chapter 4 searches the roles by subjects for the activation of lifelong training and Chapter 5 summarizes the analysis and presents policy suggestions and a theme for future research following this analysis.

By setting up a hypothesis and investigating the realities using a

questionnaire, an analysis was made to se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desire of lifelong training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eople in Jeju Island, cognition status of lifelong training and participation status of lifelong training programs.

As a result of making cross analysis and F examination, the hypothesis 1 which states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the desire of lifelong training according to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gender, age, place of residence) has been totally dismissed and the hypothesis 2 which states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the desire of lifelong training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evel of education, level of income, occupation) has been partially selected because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level of education and level of income variables excluding the occupation variable. And the hypothesis 3 stating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the desire of lifelong training according to the cognition status of lifelong training by the people of Jeju Island and hypothesis 4 stating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the desire of lifelong training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status of lifelong training programs both ended up having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and both hypotheses have been selected. In the inspection of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lifelong training and desire of lifelong training, although the overall Pearson coefficient value didn't show strong correla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shown partially and statistically.

The first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the activation of lifelong training is the financial support. The present budget for lifelong training on a central government level is in a very insufficient situation because it is 9.9 billion won which is merely 0.04%(based on general account of 2004) compared to the total education budget of 2,230,700,000,000 won. At this point which is a height of advancing into lifelong education society by the world as a whole,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 knowledge of people in charge by gradually increasing the lifelong education budget and the support on a government level for the candidates of lifelong education is also required. The second role is the improvement of policy system. By developing appropriate programs according to age and setting up mid and long term plan for lifelong education by extending it to all ages which doesn't benchmark the policy-making cases of cities with developed lifelong education such as

England and which doesn't limit its candidates to continued education of adults, a systematic amendment that can promot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n a local level to advance into the innovation of local community which doesn't make lifelong education to stop at personal leisure activity. The third role is advertis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An active purpose-oriented public announcements according to their candidates such as public announcement or program advertisement through broadcasting media such as TV, radio and publ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booklets. And a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should be ensured by active effort.

The first role of education center is that it requires an active public announcement toward the lifelong education by cooperating with local government. Second, it must give the motive for the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by giving welfare benefits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and encouraging the people who are burdened by the cost of education to participate by providing free lectures. Third, in order to play the mediating role of employment, it must raise the social degree of usage by the development of useful programs. Fourth, the network between lifelong education centers must be consolidated. First, the training or workshops to join the entire lifelong education centers of Jeju Island must be frequently held. Furthermore, an opportunity to form a chemistry with other regions and to cultivate professionalism must be made by holding a nationwide joint training. Fifth, a social atmosphere of lifelong training should be developed. Sixth, a lifelong education counseling service which helps people to find the educational path to suit the educational purpose of people in the region must be provided.

The first role of local residents is make an active usage of the knowledge gained through education by making study clubs or opening up businesses within th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learners. Second, they should make an effort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by having mor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Third,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for the lifelong education by local residents is necessary and the citizen awareness such as hav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government who can make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which is not merely for the cultivation of one's own knowledge should be cultivated. Fourth, because the

lifelong education is different from school education and is an education where the active participation is required by local residents(learners), an attitude of active participation by residents such as making suggestions for programs is required.

As examined in the inspection of hypotheses, the lifelong education of Jeju Island can be activated by distinguished education method and education site as well as development of programs to fit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slanders. Also, if each subjects make diligent effort to play their role within their posi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lifelong education of Jeju island can move into the point of activation from the present basis formation status.



감사의 글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막상 학위논문이라는 석사과정에서의 결과를 얻기까지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긴 고민의 시간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에 논문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만족감 보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자신 있게 내세우기에는 부끄럽지만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 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연구과정 동안 저의 부족함을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침과 조언을 주신 남진열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부과정부터 대학원까지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행정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논문 준비하는 동안 항상 따뜻한 격려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경수 교수님과 많은 고민을 같이 해준 고태호 선배님, 임정현선배, 행정학과 조교이자 친구인 이은정, 늦은 시간까지 학과사무실에서 편안히 논문 쓸 수 있게 배려해준 변진희 조교, 제주교육대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사과정 진창남 선생님을 비롯한 설문지 예비조사에 흔쾌히 응해주신 행정계량분석 석·박사과정 선생님들, 설문배포를 도와준 후배 원주, 수라, 경선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시며 항상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어머니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며, 착하고 믿음직한 두 남동생 봉철, 상철이와 늦게까지 학교에서 논문 쓰는 저를 같이 기다려주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창수오빠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지금 본 논문을 마무리하지만 끝이 아닌 평생교육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분야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제주지역 평생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